

2023년 주요 경제 현안과 전망

December 2022

—
삼성KPMG 경제연구원



Contacts

삼성KPMG 경제연구원

김규림

이사

T 02-2112-4089

E gyulimkim@kr.kpmg.com

곽호경

수석연구원

T 02-2112-7962

E hokyungkwak@kr.kpmg.com

최연경

책임연구원

T 02-2112-7769

E yeonkyungchoi@kr.kpmg.com

본 보고서는 삼성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Executive Summary

I
2022년 현황 및 2023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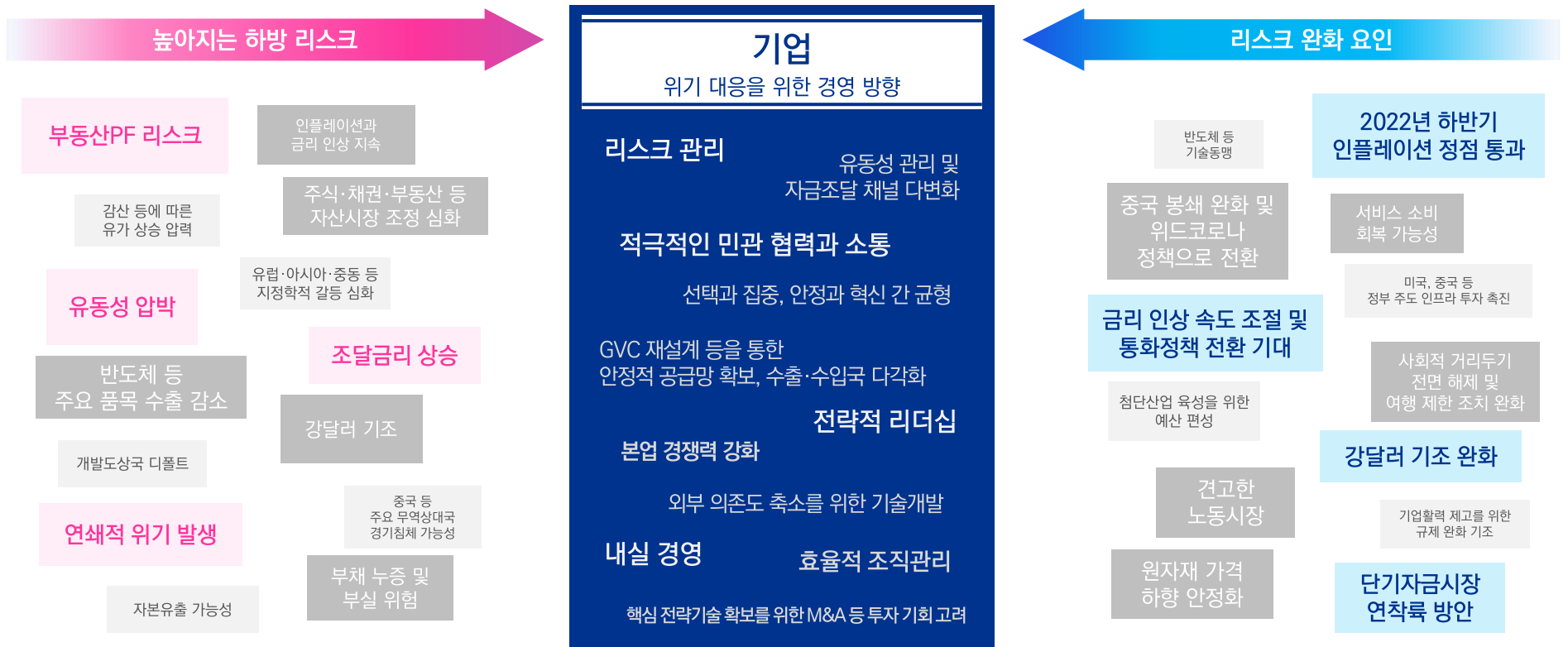
II
주요 경제 이슈

주요 경제 현안 및 2023년 전망

<h2>경제성장 1</h2> <p>주요 경제 현안 '22년 글로벌 경기는 전 세계적인 금리인상 기조, 러-우 침공 등의 영향으로 이미 둔화 국면 국내 민간소비 회복세 대비 설비·건설투자 부진, 수출 약화</p> <p>2023년 전망 국내외 경제성장률(글로벌 2.1~2.7%, 국내 1.8~2.3%)은 '22년 대비 크게 둔화될 전망 리스크 현실화 시, 경착륙 가능성도 상존</p>	<h2>인플레이션 2</h2> <p>주요 경제 현안 글로벌 경제는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경험 중 국내외 인플레이션 '22년 하반기 정점론 부각</p> <p>2023년 전망 국내외 인플레이션 '22년 대비 다소 둔화되나, 하락폭은 제한적일 전망(글로벌 6.5% 전후, 국내 경우 3.0~3.9% 수준)</p>	<h2>통화정책 3</h2> <p>주요 경제 현안 미국, '22년 4번 연속 0.75%p 인상을 포함, 7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 한국 또한 사상 최초 6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 '22년 12월 기준 미국 기준금리 4.25~4.50%, 한국 3.25% 도달</p> <p>2023년 전망 미국, 연준의 매파적 기조 유지와 시장 내 금리인상 속도 조절 및 피벗 기대감 상존. 한국, '23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 유력, 금리 상방 리스크 대응 필요</p>	<h2>환율 4</h2> <p>주요 경제 현안 '22년 본격화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강달러 지속. 다만 긴축 속도 조절 기대 및 중국 방역 정책 완화 등으로 하반기 강세 완화</p> <p>2023년 전망 글로벌 국가의 미 달러 대비 환율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시 달러와의 갭 축소로 제한적인 약세 또는 완만한 강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 러-우 전쟁 장기화 등 불확실성 상존</p>
<h2>글로벌 교역·수출입 5</h2> <p>주요 경제 현안 글로벌 상품 교역 위축세 국내 수출 증가세 둔화·수출 대비 수입 급증으로 인해 14년 만에 무역적자 기록</p> <p>2023년 전망 글로벌 상품 서비스는 위축되는 가운데 서비스 교역은 상대적으로 호조세 한국, 수출·수입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나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개선 가능</p>	<h2>정부 재정정책 6</h2> <p>주요 경제 현안 주요국,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긴축재정과 인플레이션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 필요성 부각</p> <p>2023년 전망 '23년 선진국은 긴축적 재정기조, 신흥국은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 전망 '23년 한국은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 구축, 반도체 등 핵심전략 및 미래기술 투자를 위한 예산 확충</p>	<h2>정부·기업 투자 7</h2> <p>주요 경제 현안 조달 비용 증가 및 투자심리 약화로 '22년 들어 국내외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증가율 둔화</p> <p>2023년 전망 글로벌 설비투자는 둔화, 미국 중심 건설투자는 제한적 회복세 전 국내 ICT 산업 등 설비투자는 위축될 소지가 높으나 신산업 중심으로 투자 확대 가능. 건설투자는 위축 전망</p>	<h2>노동시장·고용 8</h2> <p>주요 경제 현안 글로벌 주요국 완전고용 수준으로 낮은 실업률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시장 수급 불균형 발생</p> <p>2023년 전망 경기 둔화로 고용 증가폭 둔화 또는 완만한 고용 감소가 발생하고, 실업률 또한 '22년보다 상승 전망</p>

초불확실성의 경제 상황, 내실 경영 속에서도 기회 모색과 혁신 추진 필요

이미 글로벌 경제는 경기 하강 국면으로 2023년 하방 위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초불확실성 시대에 놓여있음. 국내외 경기 연착륙과 경착륙 가능성이 모두 상존하는 바, 단기 및 중장기적 기업 성장과 수익 약화 가능성에 노출됨. 이에 민관 협력과 기업의 전략적 리더십이 더욱 중요하며, 기업은 내실 경영과 함께 위기 속 기회 모색과 혁신 추진 필요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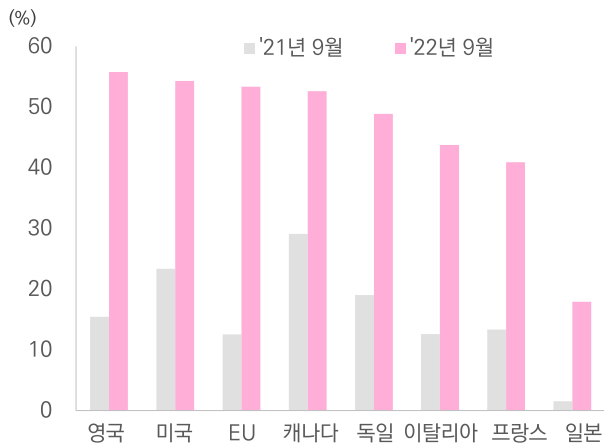
2022년 현황 및 2023년 전망

글로벌 》예상을 넘어선 러-우 전쟁의 영향, '22년 글로벌 경제 성장을 억제

'22년 글로벌 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하던 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까지 발발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가중. '21년 말 이후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선회하던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인상을 가속화. 이는 '22년 글로벌 경제 성장을 크게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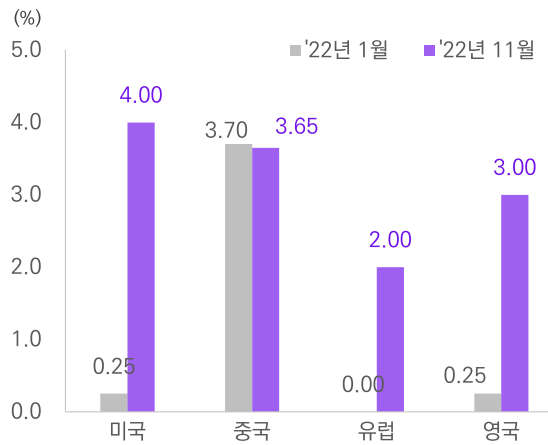
고물가, 고금리, 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

물가 바스켓상 전년대비 가격증가율 6% 초과 상품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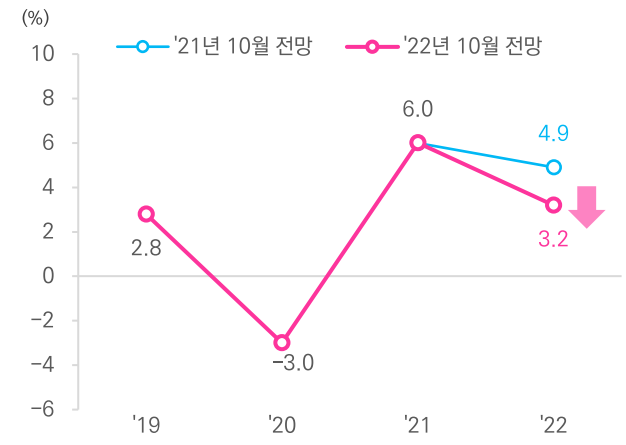
Source: OECD

'22년 중 글로벌 주요국 기준금리 변화



Source: Investing.com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글로벌 경제성장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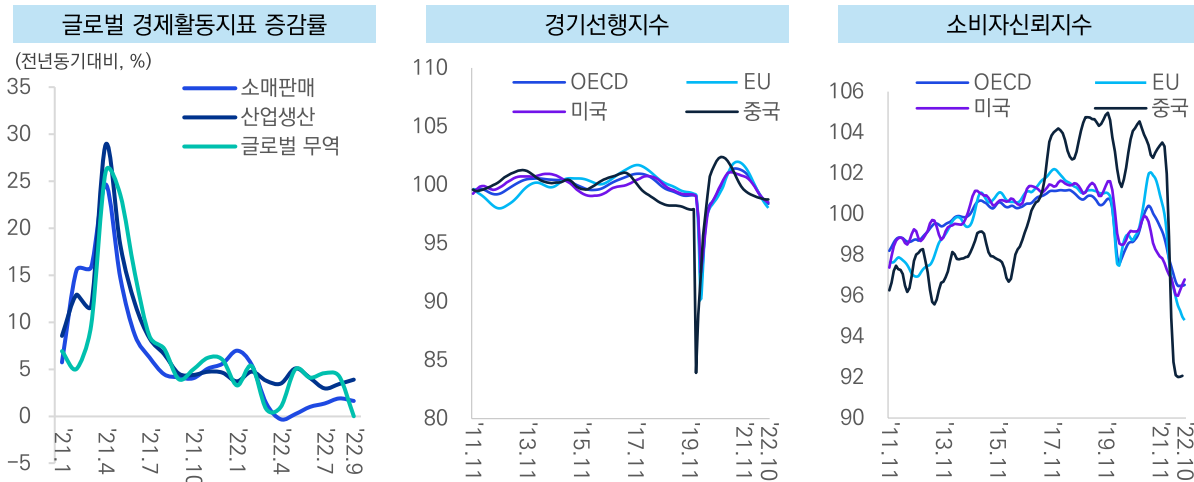
Source: IMF
Note: 실질 GDP 기준

- 코로나19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 글로벌 공급망 병목 등에 더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크게 심화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일본 등 소수 국가들을 제외한 미국 등 주요국들은 전례 없는 속도로 금리인상을 단행
-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생산량이 급감하고, 러시아에 대한 미국·유럽의 제재로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 이는 유럽 경제의 급격한 둔화를 초래하는 등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IMF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영향으로 '22년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약 1.7% 하락할 것으로 전망

글로벌 》 '23년 글로벌 경제는 여러 불확실성으로 상당한 하방 압력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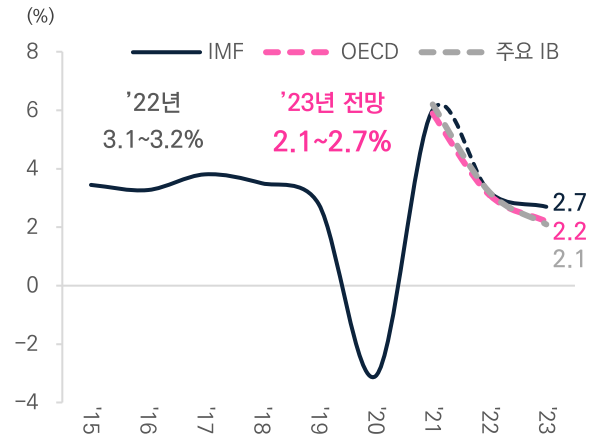
악화된 글로벌 교역량 및 경제 관련 지표는 경기 둔화를 시사. 여전히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가격 불안정성 지속, 중국 경제 리스크 확대, 미국 등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 등 다양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23년 글로벌 경제는 올해 대비 부진한 성장률(2.1~2.7%)을 기록할 전망

글로벌 경제활동지표 및 경기선행지수·소비자신뢰지수 추이



Source: IMF, OECD, Amplitude adjusted, Long-term average = 100
Note: 지수가 100 이상이면 경기 확장, 100 미만이지만 전월 대비 상승하면 회복 국면 진입 의미

글로벌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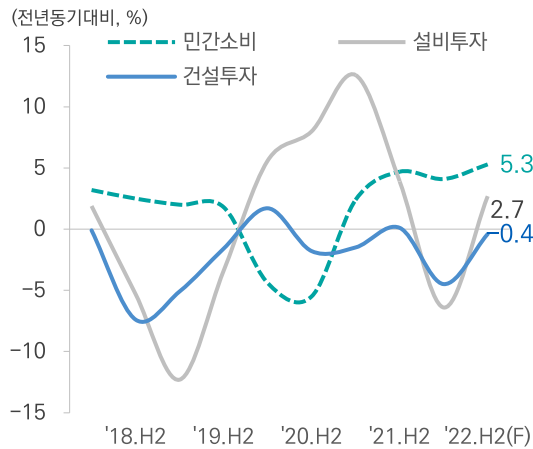
Source: IMF('22.10), 'World Economic Outlook', OECD('22.11), 'Economic Outlook', '22~'23년은 전망치

- 글로벌 경제활동 관련 지표의 하락세는 이미 글로벌 경기 위축을 나타내며, '22년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당초 4%대 성장률에서 3.1~3.2%로 하락할 전망
- 글로벌 주요국의 경기선행지수 및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 향후 경기 둔화 시사
 - [경기선행지수] '22년 10월 기준 미국은 98.5, 중국은 98.7, EU는 98.0, OECD 평균은 98.4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이
 - [소비자신뢰지수] '22년 10월 기준 미국은 96.8, 중국은 92.1(9월), EU는 94.8, OECD 평균은 96.5를 기록 중으로 '22년 들어 가파른 하락세를 기록하며 크게 위축
- '23년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세계 3대 경제권(미국, EU, 중국)의 성장 둔화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 지속 등으로 '22년 대비 상당히 저조한 2.1~2.7%를 기록할 전망

국내 » '22년 민간소비 회복세 대비 설비·건설투자 부진과 수출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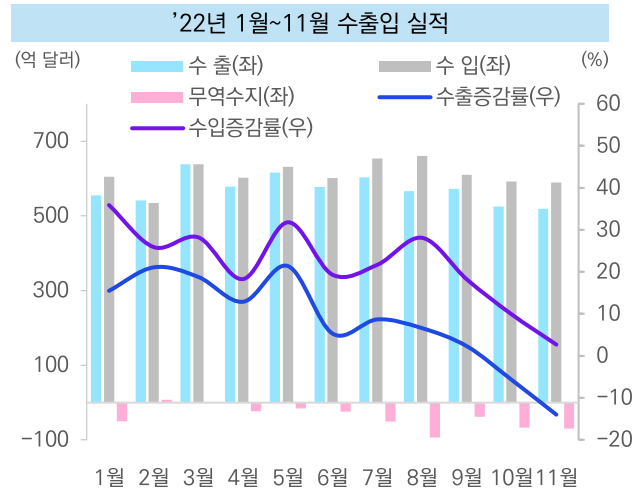
국내 경제는 민간소비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 및 금리인상 등으로 설비·건설투자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임. 특히 하반기 이후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수출이 최대 무역 국가인 중국의 수입시장 위축 및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하방 압력을 받는 가운데, 높은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가 악화

민간소비 및 설비·건설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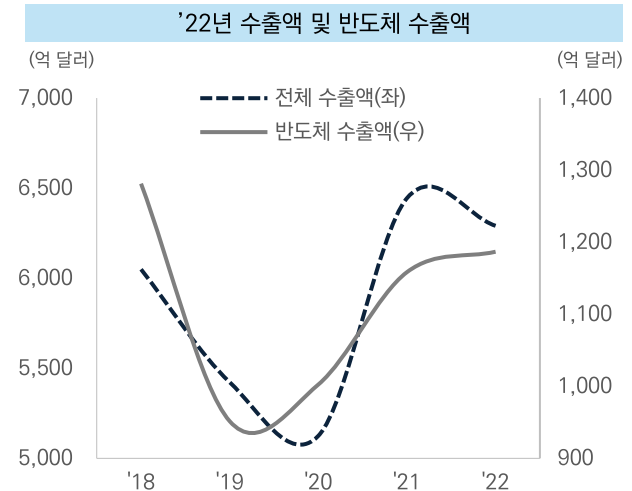


Source: 한국은행('22.11), '경제전망보고서'

'22년 수출입 실적 및 반도체 수출액 추이



Source: 산업통상자원부



Source: 한국무역협회
Note: '22년 11월까지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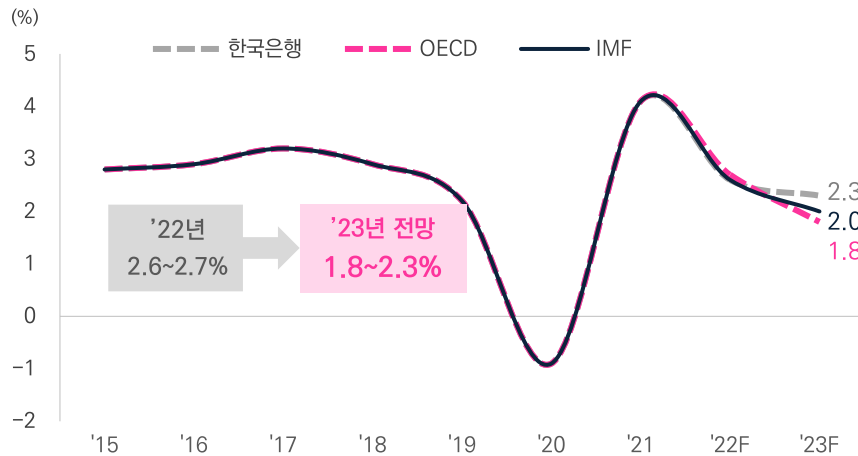
- [민간소비] 서비스를 중심으로 양호한 회복세를 기록하였으나, 금리상승, 경기악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향후 둔화 가능성 증대
- [설비·건설투자] 설비투자는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조달비용 증가 등으로 '21년 상반기 중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반도체·자동차를 중심으로 소폭 개선. 건설투자는 건설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 시장 둔화,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흐름 지속
- [수출입 실적]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이 약세를 보였으며, 특히 에너지 가격으로 상승으로 인해 높은 수입증가율이 지속되며 '22년 11월까지 연간 누적 무역수지 적자가 425.6억 달러에 달하는 등 성장동력이 위축되는 양상



국내 »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내경제, '23년 성장 동력 약화와 부진 전망

'23년 국내 경제는 주요 경제권의 동시다발적 침체,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부진,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성장 동력이 약화되며 경제성장률은 1.8~2.3%를 기록할 전망. 특히 국내외적인 불확실성 증가, 통화정책 전개 양상 등에 따라 상당한 경제 충격 가능성도 상존

한국 GDP 성장률 추이 및 전망



Source: 한국은행, IMF, OECD

한국 주요 지표 추이 및 전망

지표	2021 연간	2022		2023(F) 연간(F)	2023(F) (전년동기대비, %)		
		H1	H2(F)		H1	H2	연간
GDP(연율)	4.1	3.0	2.3	2.6	1.3	2.1	1.7
민간소비	3.7	4.1	5.3	4.7	4.3	1.3	2.7
설비투자	9.0	-6.4	2.7	-2.0	0.7	-6.7	-3.1
건설투자	-1.6	-4.5	-0.4	-2.4	2.4	-2.4	-0.2
상품수출	10.5	6.0	0.9	3.4	-3.7	4.9	0.7
실업률	3.7	3.2	2.7	3.0	3.6	3.2	3.4
소비자물가	2.5	4.6	5.6	5.1	4.2	3.1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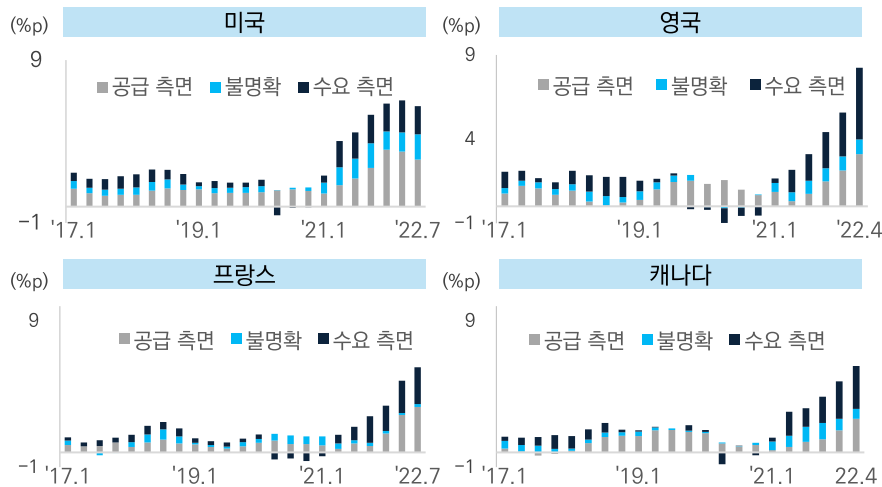
Source: 한국은행('22.11), '경제전망보고서'
Note: '22년 H2, '23년은 전망치

- '22년 국내 경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글로벌 불확실성, 높은 물가, 금리인상 기조 지속 등의 영향으로 2.6~2.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3년 국내 경제는 강한 인플레이션 및 그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글로벌 수요 위축에 따른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1.8~2.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중국-대만 간 지정학적 긴장 및 미·중 갈등 심화, 미국·유럽·중국 등 여러 경제권의 동시다발적 침체,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부동산 가격 하락, 가계 부채 및 기업 부실위험 증가, 채권시장 경직에 따른 기업 유동성 문제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증가, 통화긴축 전개 양상 등에 따라 상당한 경제 충격 가능성 존재

글로벌 》'22년 수요·공급 복합적 작용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22년 글로벌 경제는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경험.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글로벌 수요 확대, 글로벌 생산·물류 차질과 같은 공급 병목 등 기존의 인플레이션 압력과 더불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봉쇄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인플레이션이 더욱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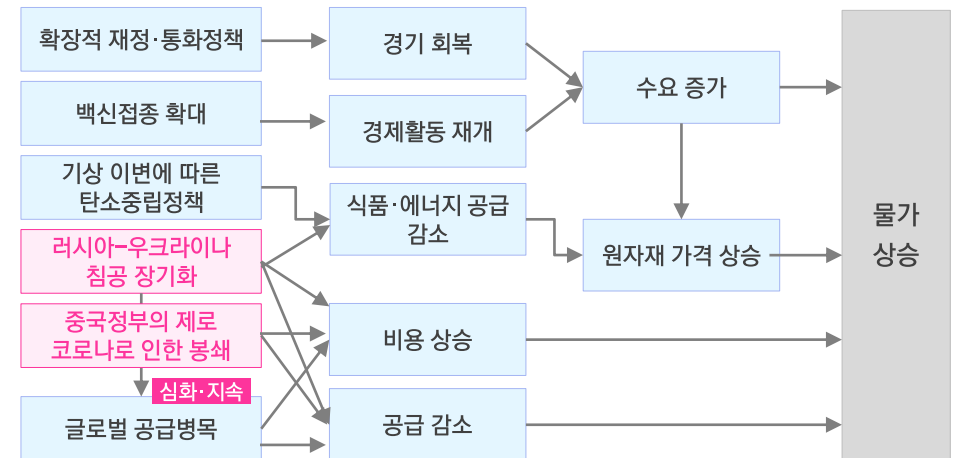
전 세계 주요국 인플레이션 기여도



Source: OECD('22.11), 'Economic Outlook'

Note: 수요 증대(공급 축소)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수요 견인(공급 견인) 인플레이션이라 지칭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 발생 및 심화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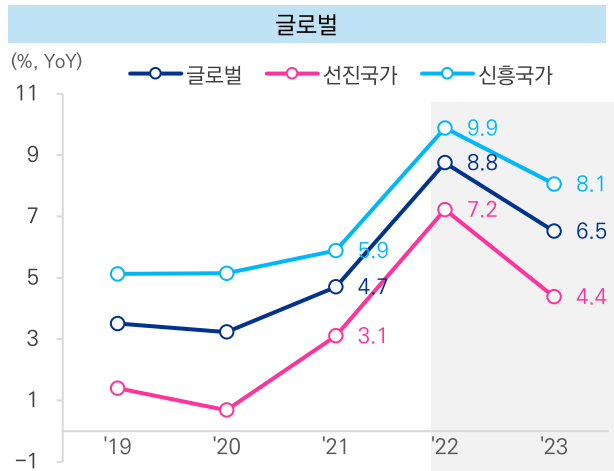
Source: 박선우('21.11), '최근 주요국 인플레이션 동향과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산업동향&이슈, 제23호, p.88, 수정인용

- '22년 글로벌 수요·공급 측면 모두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하며 지역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추이를 보인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글로벌 공급 충격을 유발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미 악화일로인 인플레이션을 더욱 심화시켰으며,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지속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석유, 곡물, 천연가스 등과 같은 원자재 가격 급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이와 더불어 중국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지인 중국에 대규모 제한·봉쇄 조치가 발생하고, 운송 인프라가 마비되는 등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이 심화
- 중국의 경제활동 둔화로 인해 수요가 약화되며 상품·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일부 완화되었으나, 일부 상품·원자재 가격은 여전히 높은 가격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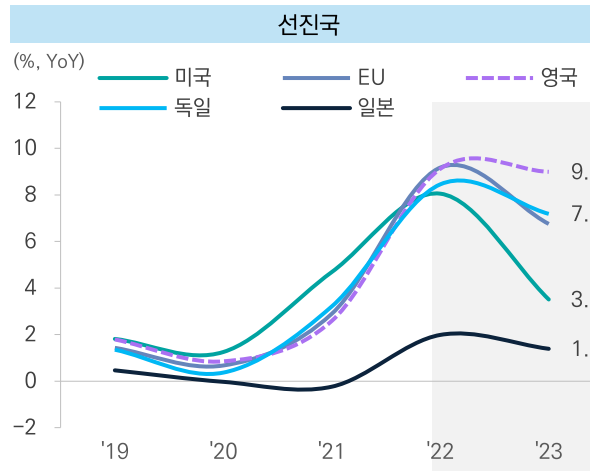
글로벌 》 '22년 하반기 정점론 무게, '23년 점진적 하락 전망

원자재 가격 급등, 공급병목 등이 완화됨에 따라 주요국 인플레이션은 '22년 하반기부터 둔화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글로벌 경기가 '23년 둔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인플레이션은 점차 완화될 전망이나 코로나19 이전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유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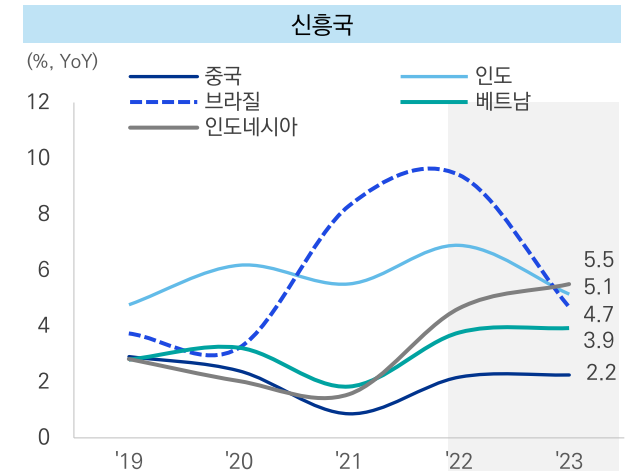
글로벌 인플레이션 전망(평균 CPI 증감률)



Source: IMF('22.10), 'World Economic Outlook'



Source: IMF,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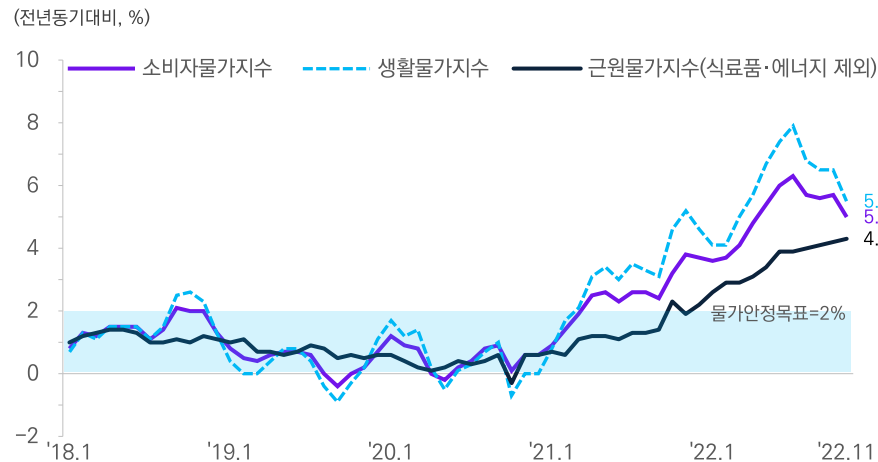
Source: IMF, OECD

- '23년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전년대비 증감률이 6.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22년 8.8% 대비 다소 둔화할 전망
- '22년 하반기 이후 대부분의 경제권에서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물가는 상승하나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선진국 경제권에서 두드러질 전망
- 선진국의 경우, 미국 및 EU와 같은 주요 경제권에서 발생하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선진국 경제권의 인플레이션 상승을 견인하고 있으며, '22년 전년대비 증감률이 7.2%를 기록한 후 '23년까지 4.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신흥국은 전년대비 증감률이 '22년 9.9%를 기록 후 '23년까지 8.1%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통화·금융시스템의 신뢰성 부족 등으로 선진국 대비 인플레이션 둔화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

국내 》 원자재 가격 상승, 원-달러 환율 급등 등으로 국내 물가 오름세 확대

'22년 1월 3.6%를 기록하던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년 7월 중 최고치인 6.3%를 기록 후 점차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22년 11월 기준 5.0%를 기록하여 여전히 물가안정목표 2%를 상회. '22년 물가 급등은 원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등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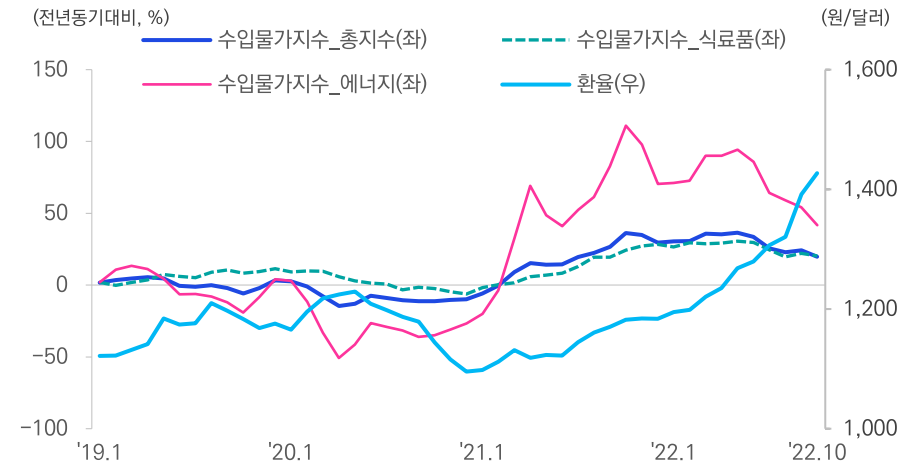
국내 물가상승률 추이



Source: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Note: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 구입빈도·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년 5월 이후 줄곧 5%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22년 6월 6.3%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경신 후 11월 기준 5.0%를 기록
-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22년 8월 4.0%를 돌파하며 11월 기준 4.3%를 기록
- 생활물가상승률은 '22년 1월 4.1%에서 '22년 7월 최고치인 7.9%를 기록 후 점차 하락하여 11월 기준 5.5% 기록

국내 물가상승률 확대 주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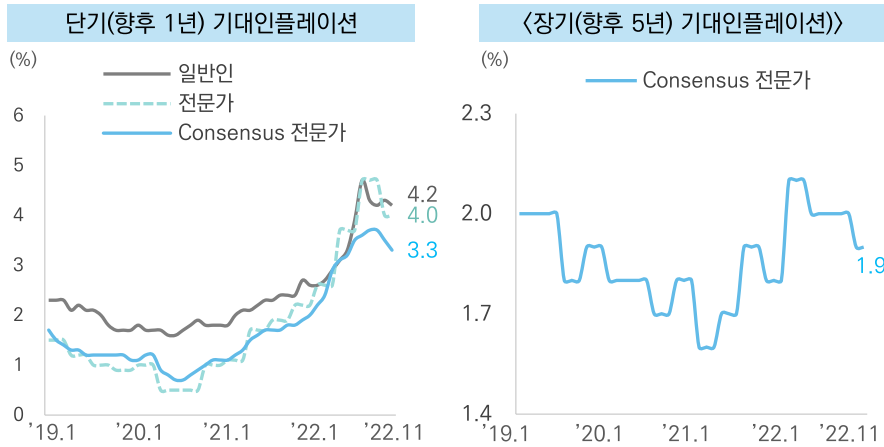
Source: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Note: 수입물가지수는 원화기준, 환율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평균환율 사용

- 수입물가지수는 '22년 10월 기준 156.9로 전월대비 1.5%, 전년동기대비 19.8%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 그러나, '22년 하반기 이후 증감률은 둔화
- 수입물가지수 상승은 국내 생산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국내 물가상승률 확대를 이끈 주요 요인 중 하나
- 수입물가지수 상승은 국제 유가 등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 및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국내 » '23년 물가상승률은 점진적 둔화, 그러나 하락폭은 제한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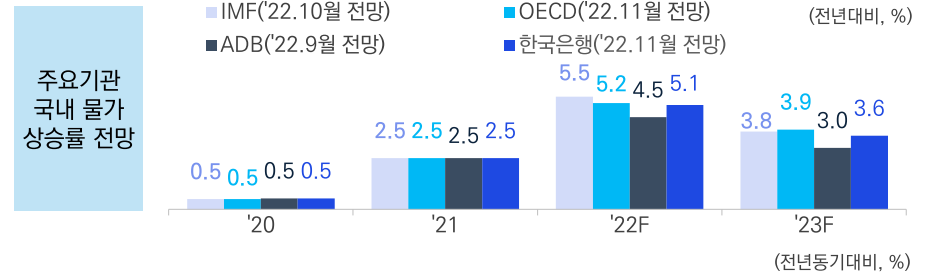
'23년 국내 물가상승률은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하락할 전망이나, 글로벌 공급망의 제한적 개선,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및 원-달러 환율 재상승 가능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등으로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국내 주요 물가지표



Source: 한국은행('22.12),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주요 기관 국내 물가상승률 전망



한국은행 물가 전망

지표	2021	2022		2023			
	연간	H1	H2(F)	연간(F)	H1(F)	H2(F)	연간(F)
소비자물가	2.5	4.6	5.6	5.1	4.2	3.1	3.6
식료품·에너지 제외	1.4	3.1	4.0	3.6	3.4	2.3	2.9
농산물·석유류 제외	1.8	3.6	4.6	4.1	4.2	3.0	3.6

Source: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은행('21.11), '경제전망보고서', IMF, ADB,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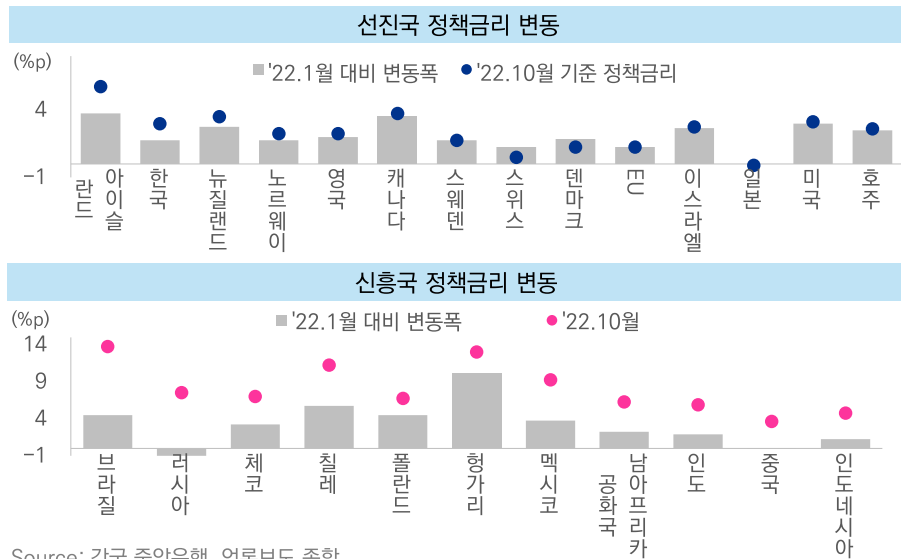
- '22년 중 물가 오름세 확대로 단기(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 또한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상승
- 일반인의 기대인플레이션은 주요 지출 품목의 물가 상승, 명목임금 오름세 등의 영향으로 '22년 11월 4.2%로 크게 상승, 전문가 그룹은 4.0%를 기록
- 전문가의 향후 5년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2년 11월 1%대 후반을 전망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 국내 물가상승률은 '22년 4분기 정점을 기록한 후 '23년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수요 부진 등으로 전반적인 하락세를 기록할 전망
- 단, 글로벌 공급망이 단기간 빠르게 개선되기 어려운 측면, 에너지·원자재 가격 및 원-달러 환율 재상승으로 인한 전반적인 물가상승 압력 지속,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하락폭은 제한적일 가능성 존재

글로벌 》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격적 금리인상 단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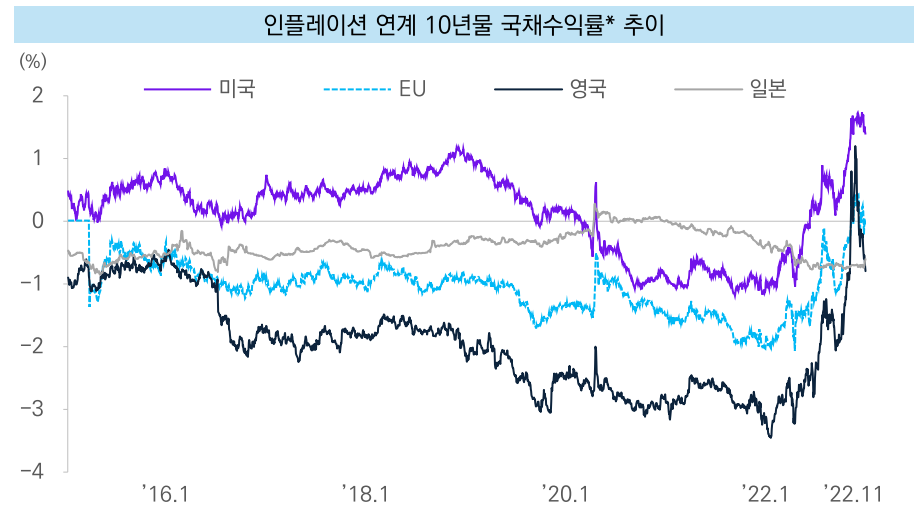
'22년 들어 인플레이션이 더욱 거세짐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은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며, 신흥국 또한 물가상승 억제 및 환율방어, 자본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 다만, '22년 12월 들어 미국 및 ECB 등이 기존 자이언트 스텝(0.75%p 인상)에서 빅스텝(0.50%p 인상)으로 금리인상 속도를 소폭 조절하는 양상임

주요국 정책금리 변동 내역



Source: 각국 중앙은행, 언론보도 종합
Note: '22년 1월 대비 '22년 10월 차이

글로벌 주요국 국채 실질 장기금리가 급등



Source: Refinitiv, OECD
Note: *Inflation-indexed 10-year Government Bond Yields

- '21년 중반부터 가속화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대부분 선진국들은 '22년 들어 긴축적 통화정책을 검토·시행
- '22년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식품 등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더욱 가파르게 치솟기 시작하는 등 글로벌 공급 충격을 촉발. 그 결과 글로벌 주요 경제권에서 두 자릿수에 가까운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각국의 통화 긴축은 더욱 탄력을 받으며 단기간 유례가 없는 속도로 금리가 인상됨
- 신흥국의 경우, 달러 강세로 야기된 자국 통화의 급속한 평가절하로 통화가치 하락, 채권 수익률 상승 및 자본유출 등을 방지하고 물가상승을 억제하고자 기준금리 인상에 동참하는 추이

글로벌 》 '22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빠른 금리인상을 단행 중인 미 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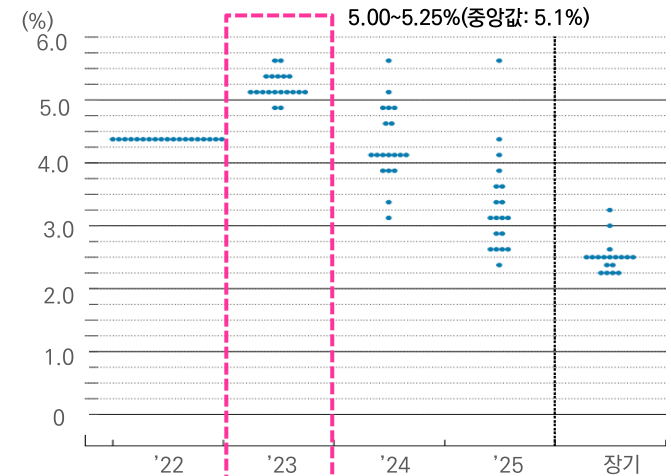
미 연준은 '22년 3월 테이퍼링 종료 후 3월 25bp 금리인상을 시작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4번 연속으로 75bp, 12월에는 50bp의 금리인상을 단행하며 기준금리 4.25~4.50%에 도달. 12월 FOMC에서 파월 미 연준의장은 최종금리를 기존 예상치보다 높은 5.00~5.25%로 제시하고, '23년 중 금리인하로 전환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FOMC 회의 주요 내용

의제	~'22.1	'22.3	'22.5	'22.6	'22.7	'22.9	'22.11	'22.12
테이퍼링 · 양적긴축	• 테이퍼링 속도 유지(매월 국채 200억 달러, 정부기관 MBS 100억 달러 축소) 및 '22년 3월 초 QE 종료	• 대차대조표 축소 계획 발표(국채 300억 달러, MBS 175억 달러, 3개월 후 각각 2배로 증액)	• 대차대조표 규모 축소 계획 발표 및 대차대조표 축소를 6월부터 시작 결정	• 대차대조표 축소를 5월 발표한 계획대로 실행	• 대차대조표 축소를 5월 발표한 계획대로 실행	• 대차대조표 축소를 5월 발표한 계획대로 실행	• 대차대조표 축소를 5월 발표한 계획대로 실행	• 국채, MCS 등을 계속 줄여나가는 양적긴축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임을 언급
정책금리	0.00~0.25%	0.25~0.5%	0.75~1.0%	1.50~1.75%	2.25~2.50%	3.00~3.25%	3.75~4.00%	4.25~4.50%
	• 금리인상 압박 시사	•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25bp 인상	•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50bp 인상	•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75bp 인상	• 6월에 이어 연속으로 75bp 인상	• 3번 연속으로 75bp 인상	• 4번 연속으로 75bp 인상	•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50bp 인상
인플레이션 인식	• '21년 12월 회의 이후 다소 약화. Core PCE 상승률 전망이 다소 상향조정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물가상승률의 큰 폭 상향 전망	• 우크라이나 침공이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명시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수급불균형, 높은 에너지 가격 등으로 높은 수준 지속	•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더 나빠지며, 전쟁과 관련된 사건들은 인플레이션에 추가적인 상승 압력 유발	•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정책금리를 제약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한동안 유지 필요	•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 제약적 정책기조를 달성까지 갈 길이 남았음을 분명히 하며 Pivot 기대 차단	• 0.50%p 인상하며 속도 조절 나섰으며, 최종금리 수준을 5.00~5.25%(중간값 5.1%)로 상향 조정

Source: BLS, Fed, 언론보도 종합

점도표 상 향후 금리인상 전망('22.1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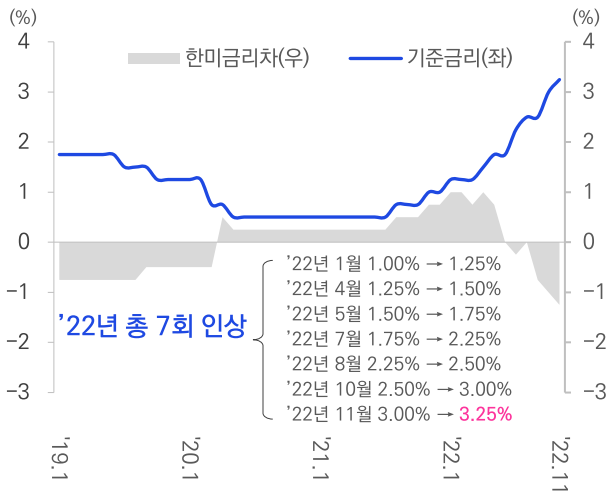
-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점도표 상 '23년 최종금리 수준을 5.00~5.25%(중간값: 5.1%)로 제시. 현 4.25~4.50% 금리 수준 고려 시 향후 최대 75bp 추가 인상 가능
-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기준금리 인상 목표 범위의 지속적인 증가 (Ongoing increases in the target range)가 적절할 것으로 본다'라는 문구를 유지,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금리인상 중단 의 뜻이 없음을 시사

Source: Fed

국내 » '23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 인상 가능

한국은행은 '22년 총 7회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여 기준금리가 3.25%에 도달. 경기 둔화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23년 상반기까지 물가상승세가 높아질 수 있는 점, 미 연준의 4회 연속 0.75%p 금리인상에 따른 금리 역전 충격 완화 필요성 등으로 인해 '23년 1~2월 국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전망

한국은행 기준 금리 추이



Source: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한국은행은 '22년 다섯 차례의 0.25%p 인상 및 두 차례 0.5%p 인상으로, 총 2.25%의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현 기준금리가 '22년 12월 기준 3.25%에 도달
- 주요국들의 긴축적 통화정책, 물가 추가 상승 압력 및 원-달러 환율 급등 등 외환 부문 리스크 영향 고려

국내 국고채 금리 추이



Source: 금융투자협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국내 국고채 금리는 '22년 들어 주요국들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 및 국내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며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
- 그러나 경기 둔화 전망에 따른 투자자의 안전자산 선호 및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감 등으로 3년물과 10년물 금리가 각각 3.63%, 3.50%를 기록하며 최근 다소 하락세

22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주요 내용

<p>“ 국내경제는 소비가 회복 흐름을 이어갔지만 수출이 감소로 전환하는 등 성장세 둔화 ”</p> <p>“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 예상 ”</p>	<p>“ 국내 경제성장률이 낮아져도,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물가 흐름세 지속 ”</p> <p>“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 유지 필요 ”</p>
<p>“ 경기 둔화 정도가 8월 전망치에 비해 커져 외환 부문 리스크가 완화되고 단기금융시장이 위축된 점 종합적으로 고려 ”</p> <p>“ 금리인상 폭은 0.25%p가 적절 ”</p>	<p>“ 향후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 ”</p> <p>“ 인플레이션 지속 정도, 주요국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점검하며 결정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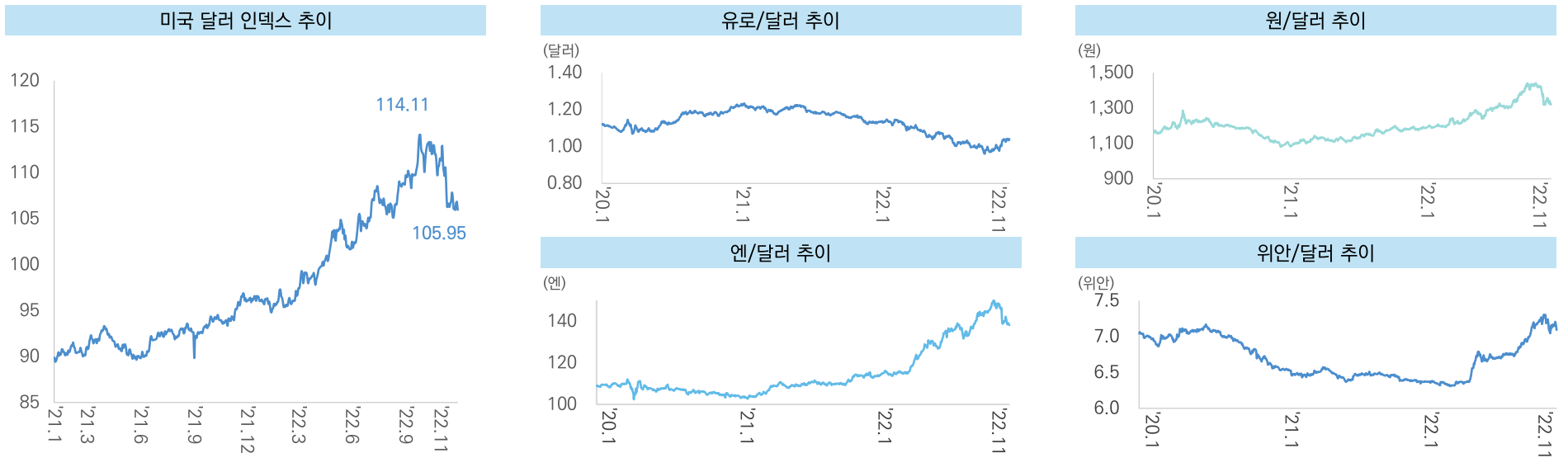
Source: 금융통화위원회('22.12), '제22차 의사록'

- 22차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한국은행은 '23년 국내경기가 악화되더라도 금리인상 및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을 내비쳐 '23년 1~2월 국내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 수 있음을 시사

🌐 글로벌 》 '22년 하반기 이후 미 달러 강세 완화

'21년 6월부터 미 연준의 테이퍼링 논의가 시작되면서 미 달러가 강세로 전환됐으며, '22년 3월부터 본격화된 미국 정책금리 인상으로 미 달러 가치는 상승세를 지속. '22년 하반기에는 글로벌 긴축 속도 완화 기대, 중국 방역 정책 완화 등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회복되며 미 달러 강세가 완화됨

미국 달러 인덱스 및 주요국 환율 추이



Source: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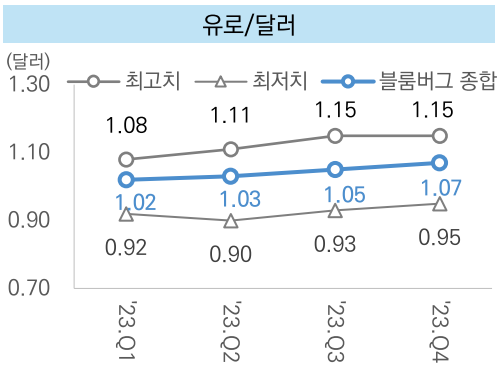
Note: '22년 12월 1일 기준, US Dollar Index는 세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의 평균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73년 3월=100)

- 미 달러는 '22년 3월부터 본격화된 정책금리 인상, 유럽 에너지 위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강세가 급격화되며 지속됨
- 주요국 통화는 미 달러 대비 약세가 지속되는 추이를 보였으나 '22년 11월 FOMC 회의록에서 금리인상 속도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소폭 강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임
-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및 인플레이션 지속 등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미 달러 강세는 소폭 둔화되는 수준에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

글로벌 》 미 달러 대비 주요국 환율, 제한적 약세 또는 완만한 강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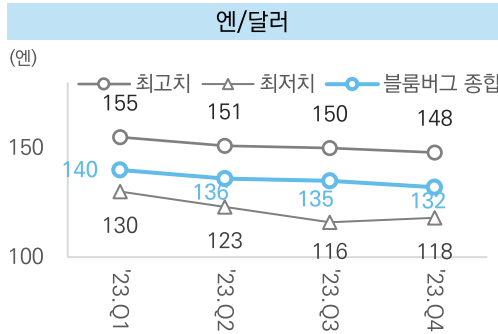
ECB의 통화정책이 전환됐으나 경제 회복세 둔화 등으로 유로화는 제한적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일본 엔화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긴축 선회 가능성 등이 점쳐지며 완만한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원화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 축소, 중국 리오프닝 등으로 제한적 강세 전환, 중국 위안화는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점진적 절상 예상

미 달러화 대비 주요국 환율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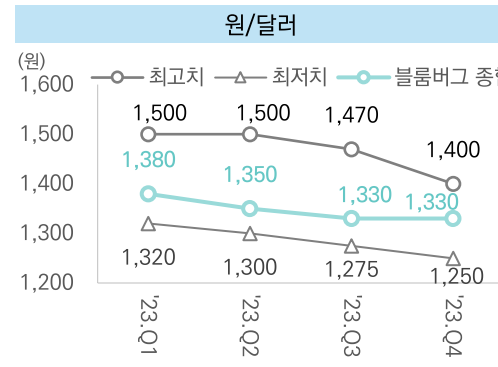
‘유로, 제한적 약세 예상’

- ✓ '23년 유럽 경제는 공급병목, 에너지·식료품 가격 급상승 등으로 경제 성장세 둔화 또는 역성장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음
- ✓ 유럽중앙은행(ECB)은 '22년 7월 기준금리 0.5%p 인상, 9~10월 자이언트 스텝에 이어 12월 0.5%p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유로화는 달러와의 갭이 축소된 수준에서 제한적인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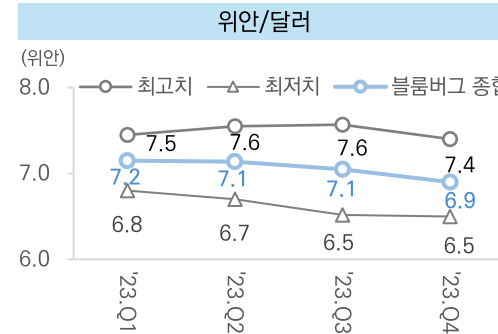
‘엔, 완만한 강세 전망’

- ✓ '22년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긴축적 통화정책과 달리, 일본은행은 기업 자금조달과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한 금융완화 조치 지속을 발표
- ✓ 그러나 '23년 일본은행 총재가 바뀔에 따라 완화적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한 재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 및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 등으로 제한적인 강세 전망



‘원, 제한적 강세 전망’

- ✓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중국 리오프닝 및 유가 하락 안정화 기대 등은 '23년 원화의 완만한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외 불확실성은 원화 강세를 제한할 가능성
- ✓ 물가 피크아웃(Peak-out) 지속, 수출 감소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 요인이 될 수 있음



‘위안, 원만한약세후강세전환전망’

- ✓ '22년 12월부터 중국 정부의 위드코로나 선회 시도, 부동산 경기 부양책 제시 등이 이루어지며 향후 강세로 전환될 전망
- ✓ 그러나 제로 코로나 정책 후유증, 경기 하방 압력, 투자·소비 위축, 전 세계 국가들과는 다른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등은 위안화 약세로 작용 가능

Source: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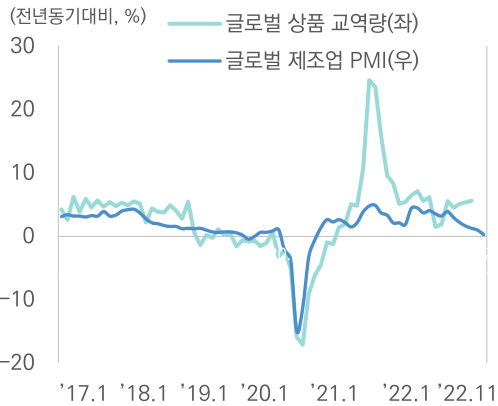
Note: '22년 12월 7일 기준, 블룸버그 종합(Bloomberg Composite)은 주요 IB 전망치 중간값

글로벌 》'23년 글로벌 상품 교역 위축 가운데 서비스 교역 상대적 호조 전망

'23년 글로벌 경기 둔화로 글로벌 교역은 과거 평균 증가 추세('04~'13년 평균 5.4%, '14~'21년 평균 2.8%)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음. 상품 교역의 위축세 대비 여행이나 운송 부문 중심의 서비스 교역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전망. 북미 지역의 수출입 수요가 상대적으로 강세 기조이며, 중국 위드코로나 정책 등에 따라 아시아 지역 수출입 확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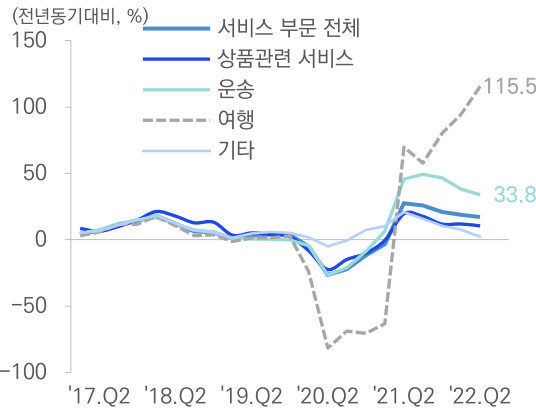
글로벌 상품 및 서비스 교역량 추이

상품 교역량 증감률 및 글로벌 제조업 PMI 추이



Source: CPB, J.P.Morgan

글로벌 서비스 교역량 증감률



Source: UNCTAD

글로벌 상품 및 서비스 교역량 전망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21	2022F	2023F
글로벌 상품교역(WTO)		9.7	3.5	1.0
수출	북미	6.5	3.5	1.4
	유럽	7.9	1.8	0.8
	아시아	13.3	2.9	1.1
수입	북미	12.3	8.5	0.8
	유럽	8.3	5.4	-0.7
	아시아	11.1	0.9	2.2

구분		2021	2022F	2023F
글로벌 상품 및 서비스 교역	OECD	10.0	5.4	2.9
	IMF	10.1	4.3	2.5

Source: IMF('22.10), 'World Economic Outlook', OECD('22.11), 'Economic Outlook', WTO('22.10), 'Trade Statistics and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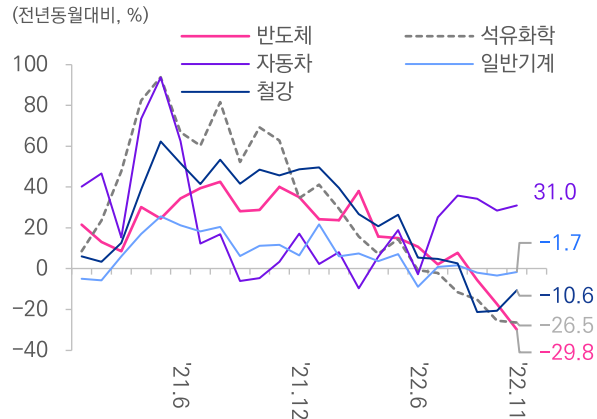
- 코로나19로 급감했던 글로벌 상품 교역은 '21년 백신 보급과 내구재 등 상품 소비 급증 등으로 '21년 4월 전년동월대비 24% 이상 성장 후 감소세로 '22년 9월 5.6% 기록
- 글로벌 교역 선행지표인 제조업 PMI는 경기 둔화 영향으로 '22년 9월 기준치(50) 하회 후 11월에는 48.4 기록
- 글로벌 서비스 교역량은 '21년 2분기부터 운송 및 여행 부문 수요 증가 등 회복세로 '22년 2분기 전년동기대비 17% 성장. 특히, 여행 부문 교역량은 116% 성장을 시현

- WTO는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주요국 경기 둔화로 수출입 수요가 위축되며 '22년 글로벌 상품 교역량은 1%대 성장 전망
- 북미 지역의 수출입 수요 상대적 강세, 중국의 위드코로나 정책 등으로 생산 재개 시, 수출·수입 성장세 높아질 가능성 상존
- '23년 서비스 교역은 관광, 레저 등을 중심으로 상품 교역 대비 호조 가능
- 이에 글로벌 상품 및 서비스 교역량 성장률은 '23년 3% 미만 수준 전망

국내 《 국내 수출 제한적 감소, 그러나 인프라 등 일부 품목 양호한 실적 가능

'22년 하반기부터 반도체·석유화학·철강 등 주요 품목이 수출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전반적 수출 증가 둔화.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23년 상반기까지 글로벌 수요 회복이 제한적이며, '23년 국내 수출 소폭 감소 또는 금년 수준 대비 약 1% 내외 증가 가능. 바이오헬스·이차전지 등 신산업 품목과 원전·방산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수출 증가 가능성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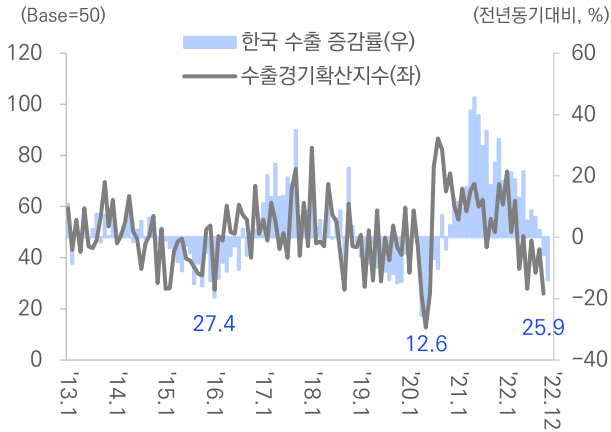
국내 주요 품목 월별 수출 증감률 추이



Source: 산업통상자원부('22.12.1), '2022년 11월 수출입 동향', 관세청,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 '22년 최대 수출품목 반도체는 수요 약세·재고 누적으로 9월 이후 월별 수출증가율은 감소세로 전환, 일반기계·철강의 경우도 최근 수출 감소세
- 반면, 자동차·석유제품의 경우 높은 증가세를 유지 중인 가운데, 바이오헬스·이차전지 등 신산업 품목 수출 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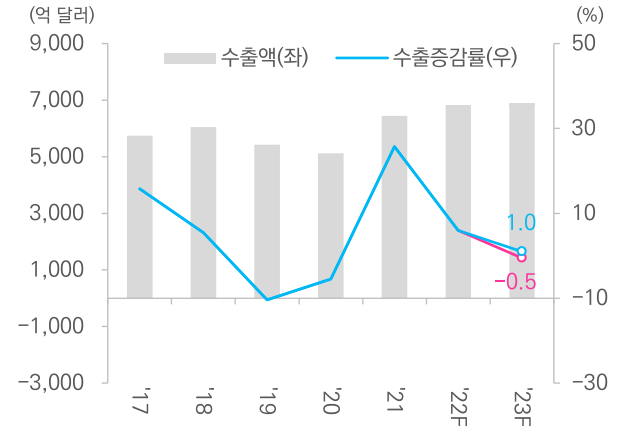
국내 수출액과 수출경기확산지수 추이



Source: 산업통상자원부('22.12.1), '2022년 11월 수출입 동향',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확산지수가 50보다 크면 확장 국면, 작으면 경기 수축 국면 의미

-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각국 수입 수요 감소로 월별 수출 증가율은 '21년 5월 이후 하락세이며 '22년 10월(Δ5.7%), 11월(Δ14.0%) 감소세로 전환
- 약 7개월 가량 선형지수인 수출경기확산지수는 '22년 4월 35.6으로 기준치(50) 하회, '22년 10월 27.8 기록하면서 수출 하강 국면 돌입 가능성 유력

국내 수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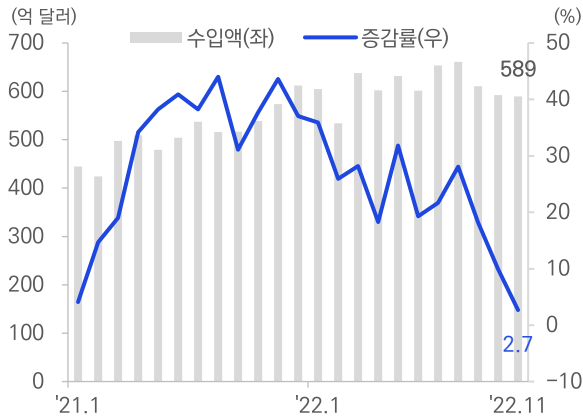
Source: 산업통상자원부, 삼성KPMG 경제연구원

- '22년 1~11월 수출액은 6,291억 달러(전년대비 7.8% 증가)이며, 최근 수출 감소세 고려 시 '23년 수출 증가율은 Δ0.5~1.0% 수준 전망
- 글로벌 수요 약화로 제품 가격이 하락세인 반도체·석유화학·철강 등은 수출 증가 제한적. 반면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등의 산업 내에서 수출 증가 가능

국내 《 수입 증가율 감소 및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개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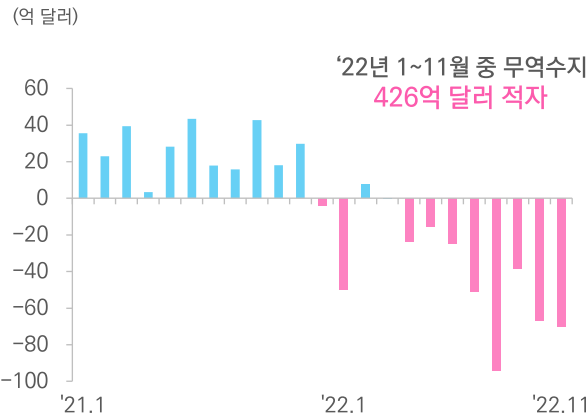
'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수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 수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입액 급등으로 무역수지 악화. '23년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수입액은 올해 대비 감소(△5.5~△1.2%)하고 상품수지 중심으로 경상수지 개선 전망

국내 수입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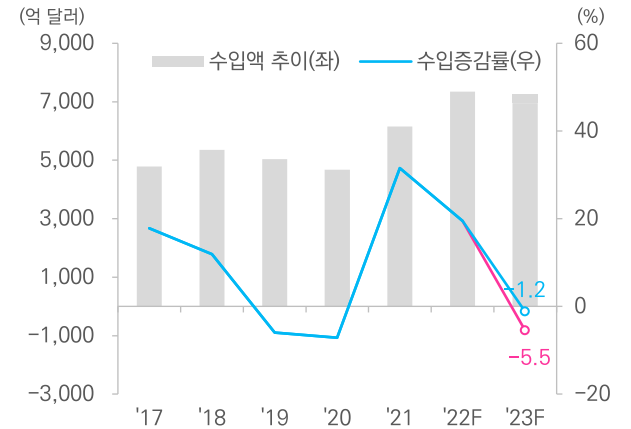
Source: 산업통상부
Note: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무역수지 추이



Source: 산업통상부
Note: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국내 수입 전망



Source: 한국은행('22.11), '경제전망보고서'

- '22년 1~11월 중 수입액은 6,716억 달러(전년동기대비 21.2% 증가)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증가세였으나, '22년 8월 이후 증가율 둔화
- '22년 1~9월 중 1차 상품 비중은 지난해 대비 4.2%p 증가한 반면,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2.7%p, 1.1%p 감소하고, 중간재도 0.4%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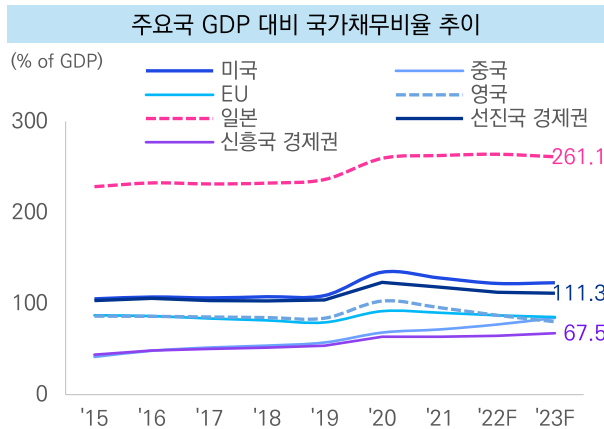
- '22년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액의 급등으로 '22년 1~11월 중 무역적자 규모는 426억 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11월의 경우 70.1억 달러 무역적자 발생
- 원유·가스·석탄 수입단가 모두 전년보다 높은 수준 유지 중
- 다만, 1~9월 중 한국 무역적자 규모(△538억 달러)는 일본(△1,117억 달러), 독일(△1,229억 달러) 대비 양호한 수준

- '23년 국제 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수준으로 점진적 하향 안정화되면서 '23년 수입증가율은 △5.5~△1.2% 수준 전망
- '22년 무역수지 악화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위축되었으나, '23년 이후 무역수지가 개선되며 서비스 수지 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개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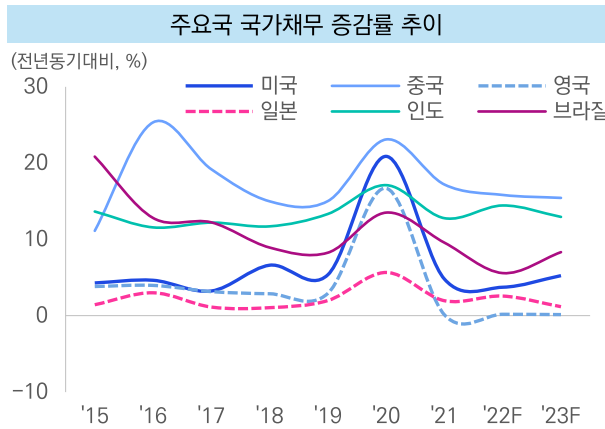
글로벌 》 선진국의 국가채무비율은 감소, 신흥국은 증가세 유지

'23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은 선진국의 경우 전년대비 1.1%p 감소한 111.3%, 신흥국은 전년대비 3.0%p 증가한 67.5%로 전망. IMF는 물가안정을 위해 각국의 재정정책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지원하는 등 보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인플레이션에 크게 영향 받는 취약계층 보호가 재정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강조

주요국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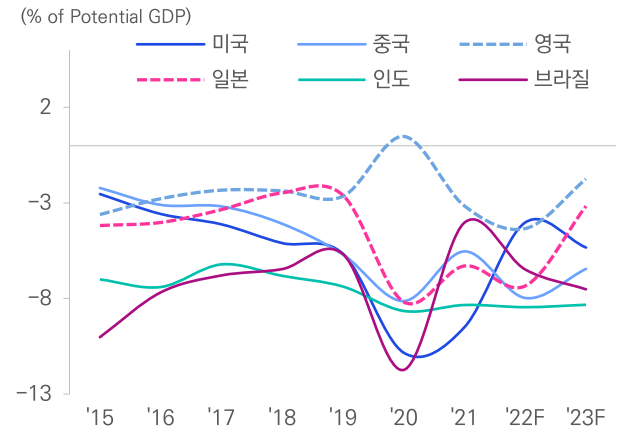


Source: IMF
Note: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기준



Source: IMF
Note: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기준

주요국 재정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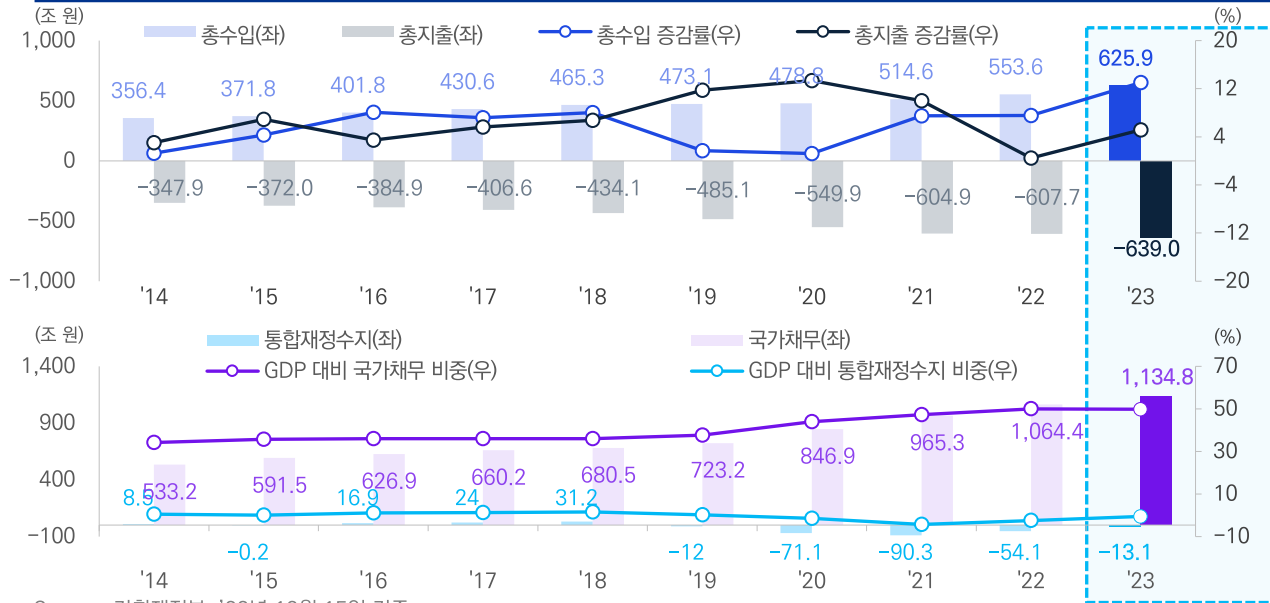
Source: IMF
Note: General Government Structural Balance 기준

- 선진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등세를 기록했으나, 재정전전성 확보를 위해 긴축 재정 기조를 지향함에 따라 '23년에는 전년대비 1.1% 감소한 111.3%를 기록할 전망
- 반면, 신흥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3년에도 증가세를 유지하며 전년대비 3.0% 증가한 67.5%에 도달할 전망
- IMF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완화적인 재정정책 시행으로 인해 총수요가 증가하고, 긴축적 통화정책에 의한 디스인플레이션 효과가 상쇄될 것으로 전망하며, 각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임을 강조. 이에 정부의 재정정책 또한 긴축적 통화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보수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 재정·통화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일치되어야 함을 언급
- 이와 더불어, IMF는 총수요를 자극하거나 공급 인센티브를 감소시키고, 긴축적 통화정책의 디스인플레이션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정부 지출, 세금 감면 및 식품·에너지 보조금 등은 지양하되, 생활비 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에 특히 취약한 사회 계층·구성원 보호가 재정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강조

국내 » 건전재정 기조의 '23년 예산안,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개선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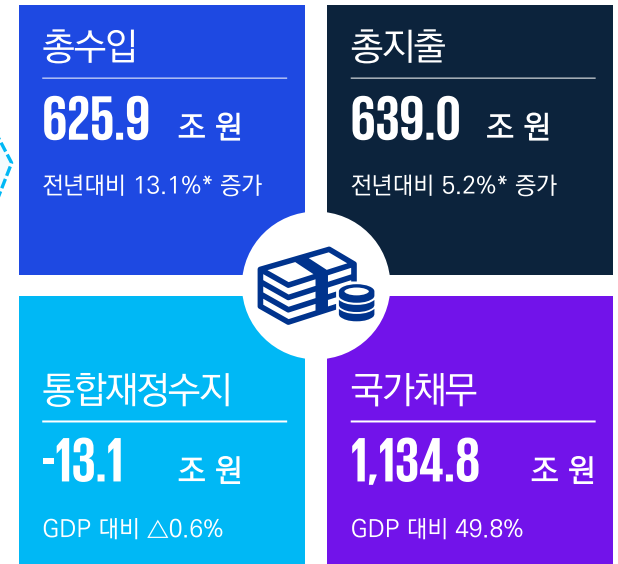
'23년 예산안은 확장된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 총지출은 전년 본예산 대비 5.2% 증가한 639.0조 원, 총수입은 13.1% 증가한 625.9조 원으로 확정. 통합재정수지는 '22년도 본예산 대비 41.0조 원 증가하며 개선. 국가채무는 전년 본예산 대비 70.4조 원 증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전년 본예산 대비 0.2% 하락한 49.8% 전망

총수입·총지출 및 국가채무 추이



Source: 기획재정부, '22년 12월 15일 기준
Note: '22년까지 결산 기준, '23년부터 예산안 기준 작성

'23년 국가예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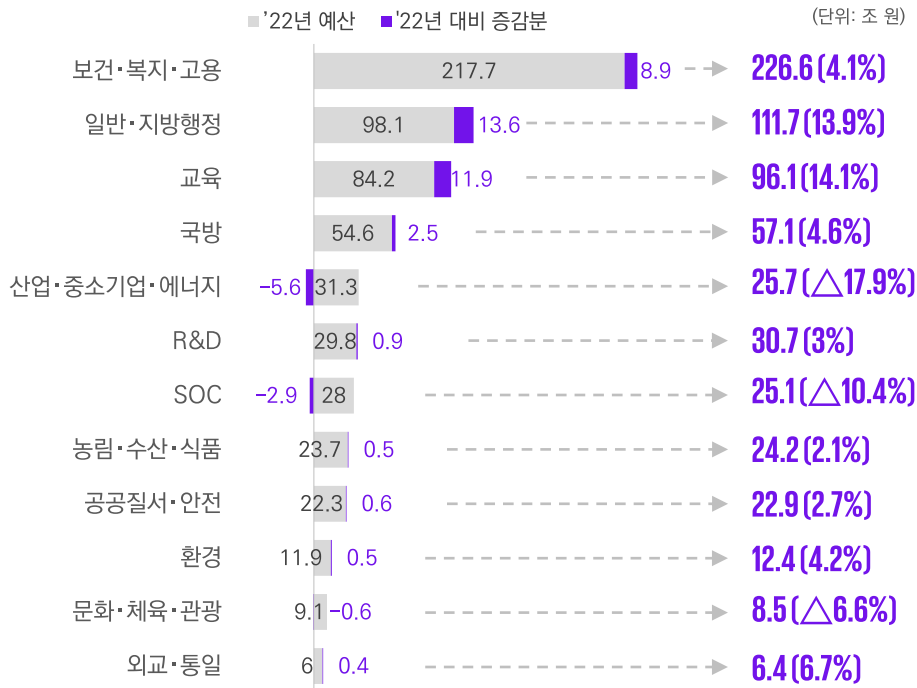
Source: 기획재정부
Note: * '22년 본예산 대비

- '23년 총지출은 639.0조 원('22년 본예산 대비 5.2% 증가, 추경예산 대비 6.0% 감소), 총수입은 625.9조 원('22년 본예산 대비 13.1%, 추경예산 대비 2.8% 증가)으로 확정
- '22년 통합재정수지는 △13.1조 원(GDP 대비 △0.6%)으로 '22년 본예산 대비 41.0조 원, 추경예산 대비 57.3조 원 개선되었으며, 국가채무는 1,134.8조 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 대비 0.2%p 하락하고, 추경예산 대비 0.1%p 상승한 49.8%에 이를 것으로 전망

국내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면서 미래전략산업 등에 대한 예산 편성

'23년 예산안은 보건·복지·고용 및 교육 등에 대한 예산안을 늘리면서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 등에 집중함.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부문은 보다 효율적 지출구조를 지향하는 가운데, 반도체산업 초격차 확보 투자, 7대 핵심전략 기술과 미래 기술 시장 선점을 위한 6대 미개척 분야의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예산 확충

'23년 예산안 분야별 자원 배분



Source: 기획재정부
Note: 괄호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3년 예산안 12대 핵심 과제 (135조 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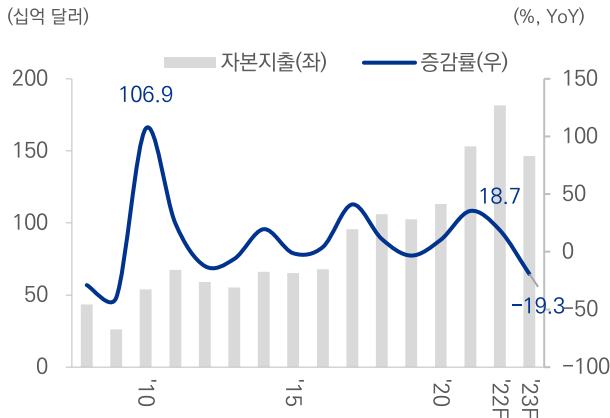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31.6조 원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지원 강화	26.6조 원
생활물가 안정 지원	5.5조 원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등 종합지원	24.1조 원
농산어촌 지원 강화 등 지역균형발전	8.0조 원
반도체산업 초격차 확보 투자	1.0조 원
인력양성(4천억 원), R&D(4천억 원), 인프라 등(2천억 원)	
7+6 핵심전략기술 집중 투자	6.0조 원
① 7개 전략기술(반도체, 5G·6G·양자, 미래모빌리티, 우주,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인공지능) 4.5조 원, ② 6대 미개척 분야(핵융합 등 미래에너지, 난치병, 식량위기·사회재난 등 생활안전, 로봇·VR/AR 등 일상혁신, UAM·하이퍼루프 등 이동혁명, 우수기초연구지원) 4,000억 원, ③ 민간역량 활용 1.1조 원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3.1조 원
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조선·자동차,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품목의 국산화 R&D 지원 2조 3천억 원, ② 니켈·알루미늄 등 주요 비철금속 및 석유 공공 비축 확대 5,700억 원, ③ 해외자원개발(2천억 원)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4.6조 원
중소기업(2.4조 원), 벤처창업(0.6조 원), 소상공인(1.0조 원)	
군 장병 근무여건 개선 및 일류보훈체계 구축	13.1조 원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는 적극적 ODA	4.5조 원
국내기업 해외진출(1.5조 원), 개도국 협력(2.0조 원), 국제기구 협력(1.0조 원)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7.2조 원
수해 등 재난대응(6.8조 원), 생활안전(1.1조 원) 등	

Source: 기획재정부

글로벌 《'23년 글로벌 기업 설비투자 위축, 그러나 일부 업종별·지역별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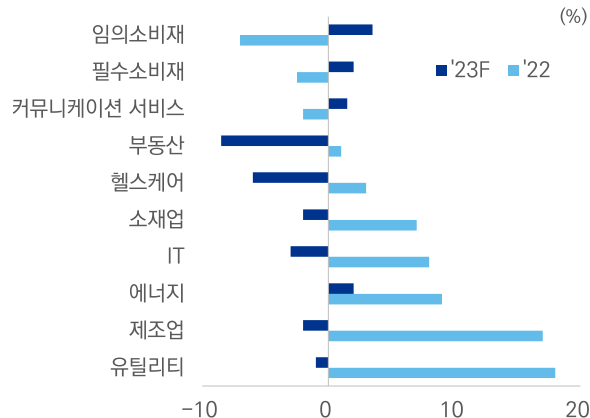
'22년부터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글로벌 기업의 자본 지출 증가세가 둔화되며, '23년 글로벌 경기 하방 압력에 따른 수요 위축과 조달비용 증가로 글로벌 설비투자 위축 전망. 소비재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등 일부 업종의 경우 기업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 미국과 일본 등 자본지출 증가 가능

글로벌 반도체 부문 투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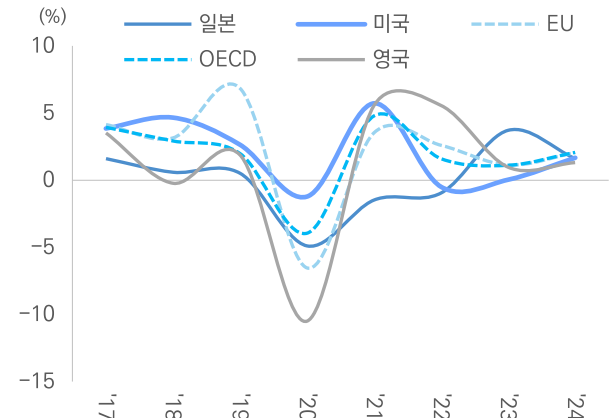
Source: Design &Reuse('22.11.22), '2023 Semi Capex Forecast Sees Largest Decline Since 2008-09'

아세안 지역 업종별 CAPEX 전망



Source: Refinitiv, Reuters('22.7.28), 'Asian firms' capex to shrink in 2023, first since 2015 - data'

글로벌 총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추이



Source: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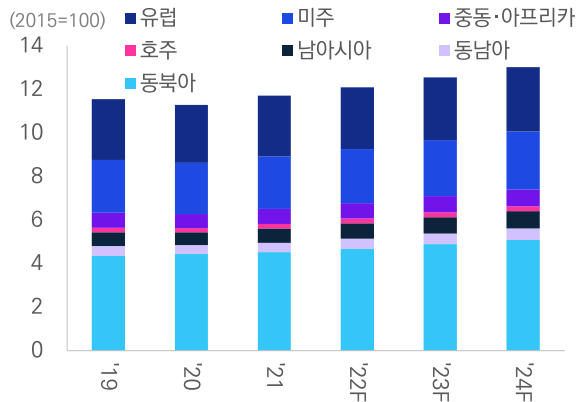
- '22년 1,80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졌던 반도체 시장의 자본지출은 '23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약세와 중국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한 미국제재 강화 등으로 전년대비 19% 이상 감소할 전망
- 전반적으로 글로벌 기업의 설비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 기업들의 자본지출은 '22년 6.4% 증가한 반면 '23년에는 0.7% 감소할 전망
- 그러나 경기 둔화 가운데 소비자 수요 위축이 제한적인 소비재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등의 경우, 투자를 확충하여 시장 내 입지를 높이려는 기업 움직임 가능

- '22년 일본, 미국 등 재정 긴축 기조 등으로 정부의 설비투자 및 R&D 투자 등 고정자산 투자가 감소함
- 그러나 예상대비 높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으로 '22년 위축된 기업 투자와 정부 투자를 상쇄하고 미래 동력 확보 등을 위해 일본, EU 등을 중심으로 '23년 자본지출을 확대할 가능성 상존

글로벌 》 주택경기 부진과 공공 인프라 투자 기조로 건설투자 제한적 성장

'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세계 건설시장 성장세가 하향 조정된 가운데, '23년 경기 침체 가능성 및 각국 공공 인프라 투자 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혼재되며 세계 건설시장 성장세는 3%대 중후반 전망. 미국의 경우, 인프라 투자 등 공공 건설투자 호조가 전반적 건설투자 위축을 상쇄, 오일머니 기반 중동 건설투자 양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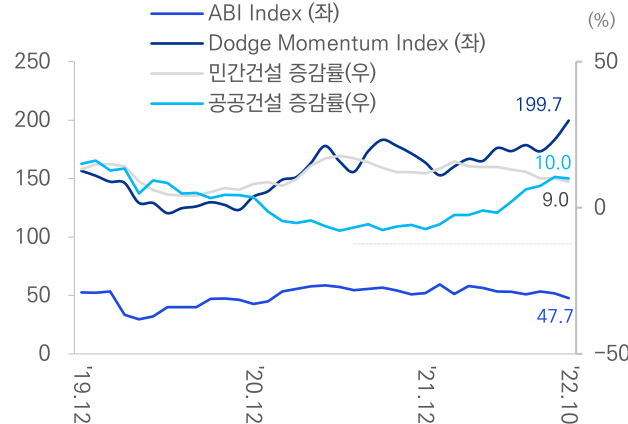
세계건설시장 전망



Source: 대한경제('22.8.9), '올해 세계 건설시장 '12조 달러 이상', Global Data

- '22년 세계 건설시장은 상반기 주택 투자 회복, 인프라·에너지 투자로 성장세였으나, 하반기 고금리·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 하향 조정(4.0%→ 3.3%)된 12.2조 달러 예상
- '23년 경기 침체 가능성과 공공인프라 투자 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혼재된 가운데 글로벌 건설시장은 전년 대비 3.8%, 동남아 6.8%, 남아시아 6.2%, 중동·아프리카는 4.3%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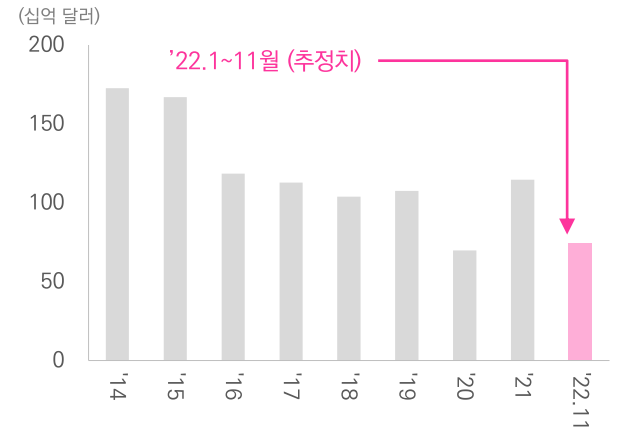
미국 건설투자 주요 지표 추이



Source: US Census Bureau
Note: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 ABI Index의 경우 base=50

- 미국 ABI 지수는 '22년 10월 47.7로 기준치(50)를 하회. 민간 건설투자 증가율은 '22년 2월 15.8%에서 10월 9.0%로 하락세
- '21년부터 역성장이던 미국 공공 건설투자는 '22년 6월부터 (+)로 반등하며 10월 10.0% 기록. 비주택건설 선행지표인 Dodge Momentum Index는 '22년 초부터 지속 상승세
- 미국 에너지, 수자원 등 인프라 재건 사업 본격화로 공공 건설투자 호조가 민간건설 감소세를 상쇄할 전망

중동 GCC 프로젝트 계약 규모



Source: KOTRA('22.9), '2022년 상반기 GCC 프로젝트 시장 동향 및 전망', ME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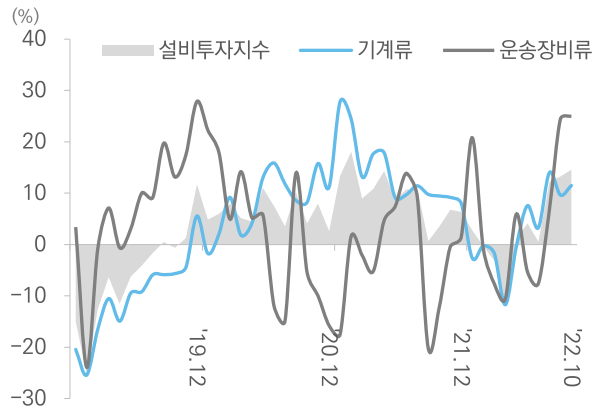
- '22년 유가 상승에 따른 오일머니로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산유국은 스마트시티 네옴(NEOM) 프로젝트, 아람코의 탄화수소 처리 시설 등 건설산업 추진
- '22년 1~11월 계약 규모는 전년 대비 약 70% 수준. '23년 탈석유화 등을 앞세워 대규모 경기부양책 구체화 전망
- IHS Markit은 '23년 중동 건설 시장 규모가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 그러나 과당경쟁 및 공사대금 미지급 등에 대한 리스크도 상존



국내 » 반도체 등 ICT 산업 등 설비투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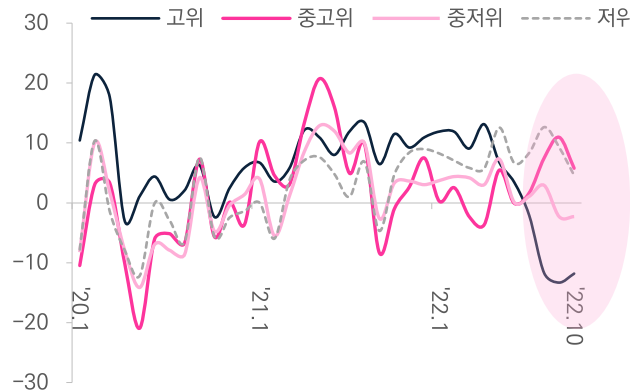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설비투자를 확충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고위기술산업군을 중심으로 '23년 전반적으로 설비투자 증가율 둔화 전망. 생산설비 부족에 놓인 자동차 및 운송장비 등의 경우, '23년 수요 및 생산 감소로 설비 부족 현상이 완화되며 설비투자 증감률은 현재 대비 둔화 전망

설비투자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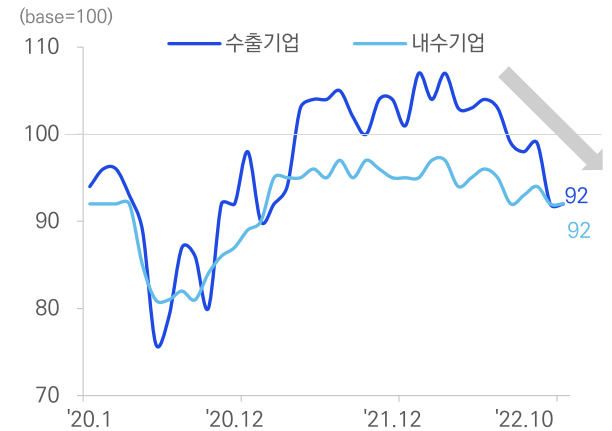
Source: 한국은행
Note: 계절조정지수 기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산업별 설비투자조정압력 추이



Source: 통계청,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
Note: 설비투자조정압력은 생산증가율과 생산능력증가율 차이로 향후 설비투자 확대에 대한 필요 함의

국내기업 설비투자 BSI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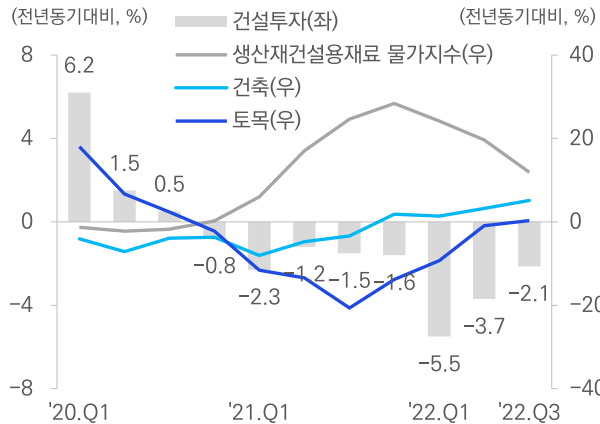
Source: 한국은행

- '22년 글로벌 수요 위축 등으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고위기술산업군의 경우 생산설비 과잉 상황에 노출
- '22년 하반기 글로벌 공급 차질 완화와 대기 수요 등에 따른 기계류(특수산업용기계 등) 및 운송장비류(자동차 등)에서 전년동기대비 설비투자 확대
- '23년 자본조달 비용 증가,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및 생산 둔화와 수익성 악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설비투자 위축 가능
 - 중고위기술산업군의 경우 현재 생산설비가 부족한 상황이나 '23년 경기 위축에 따른 수요 및 생산 둔화로 생산설비 부족 상황이 완화되면서 현 추세 대비 소폭 낮은 수준의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
 - 배터리, 5G-6G-양자, 미래모빌리티, 우주, 첨단바이오 등 신산업기술 및 친환경 기술 등의 경우, 정부 육성책과 더불어 기업의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상존

국내 » 전반적 부동산 경기 둔화와 SOC 예산 감소 등 건설투자 위축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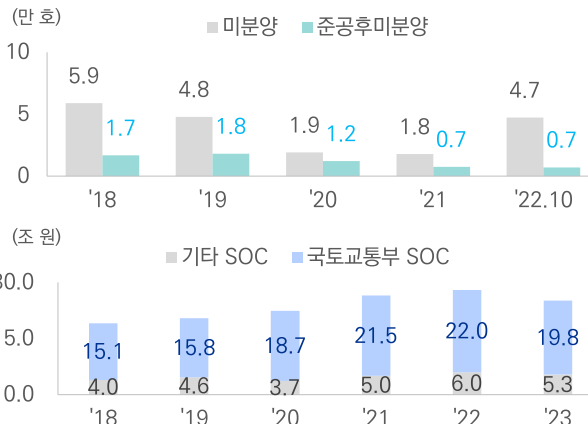
'23년 건설투자는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과 신규 분양 위축, 경기 둔화로 인한 비주거용 건물 수요 감소, SOC 예산 감소 등으로 건축 및 토목 등 건설투자가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 그러나 건설자재 가격 상승세 둔화와 3기 신도시 착공,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의 긍정적 요인도 상존

건설투자 및 물가지수



Source: 한국은행
 Note 1: 건설투자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실질)기준
 Note 2: 건축 및 토목은 분변 건설기성 기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미분양 주택현황 및 SOC 예산 추이



Source: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21.12.3), 2022년 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 및 국토교통부 예산 각 연도
 Note: 기타 SOC=전체 SOC 예산-국토교통부 SOC 예산

건설수주 및 기성액 추이

구분	2022 (%)						
	2019 연간	2020 연간	2021 연간	2022 Q1	2022 Q2	2022 Q3	
건설수주	7.6	16.6	9.6	13.4	22.3	33.2	
공종별	건축	7.0	29.1	8.0	7.5	18.9	31.9
	토목	9.4	-16.1	15.9	40.5	36.9	38.9
발주자별	공공	4.1	14.8	-3.0	25.0	-5.8	45.8
	민간	5.7	24.6	13.7	13.3	27.9	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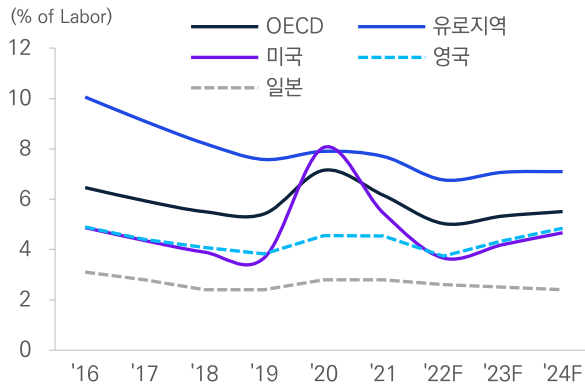
Source: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각 월호
 Note: 경상금액 기준 전년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21년 철강재 등의 가격 상승과 '22년 시멘트 등 비금속광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건설용재료 물가지수는 '21년 4분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28.4%, '22년 3분기에는 11.9%의 증가세를 기록
- 건설자재 가격 상승세 둔화는 긍정적 요인이거나,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과 신규 분양 위축, 경기 둔화로 인한 비주거용 건물 수요 감소, 정부 SOC 예산 감소에 따른 토목 건설 부진 가능성 등 건설투자가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
- '22년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며 미분양이 증가하는 양상이 이어지며 '23년 건축투자를 제약할 수 있으나, 3기 신도시 착공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긍정적 요인도 상존
- '23년 정부의 전체 SOC 예산은 25.1조 원으로 재정건전화 기조 하 전년 대비 약 10% 감소하면서 '23년 토목 건설 부진 가능
- 선행 지표인 건설수주(경상금액)는 개선세이지만,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 등을 고려 시 실질 증가율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 필요

글로벌 》 주요국 노동시장 완전고용 수준, 그러나 고용 증가 속도 둔화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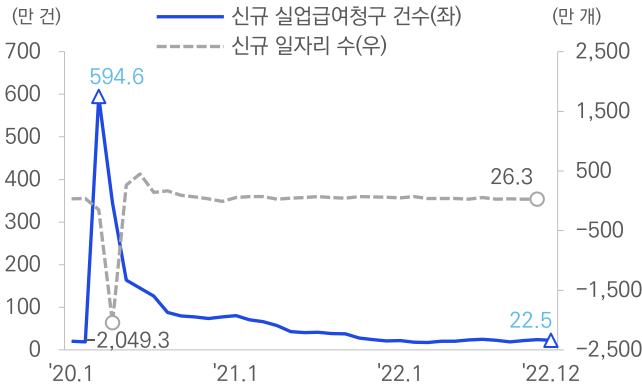
글로벌 주요국의 고용시장은 경기 개선, 코로나19로 노동시장에서 중고령자 이탈, 이동 및 이민 제한 조치 등의 영향으로 낮은 실업률과 높은 구인율이 관찰되는 등 전반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임. 인플레이션 지속은 평균 실질 임금이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고용시장 수급 불균형 문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주요국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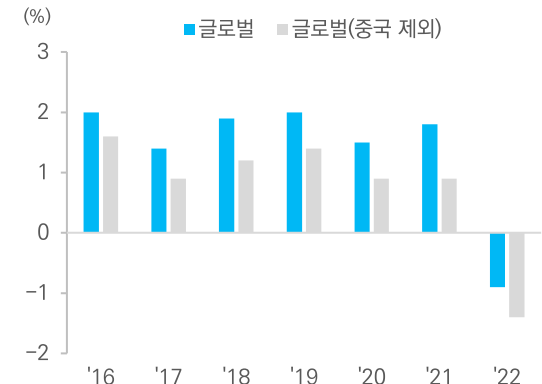
Source: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22
Note: '22~'24년은 전망치

미국의 주요 고용지표



Source: United Department of Labor
Note 1: 신규 실업급여청구 건수는 Unemployment Insurance Claims 기준
Note 2: 신규 일자리 수는 미국 비농업 취업자 수(Nonfarm Payrolls) 기준

글로벌 연간 평균 실질 임금 증감률 추이



Source: ILO('22.11), 'Global Wage Report 2022-23'
Note: '22년은 추정치

- 주요국 노동시장은 타이트한 수급환경을 보이면서 노동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낮은 실업률 추세를 이어가는 중이나 향후 경기 둔화에 따라 일부 경제권의 완만한 고용 감소가 예상됨
- 미국의 신규 실업급여 청구 건수는 '21년 12월 21만 1,000건에서 '22년 12월 22만 5,000 건으로 증가하면서 시장 예측치(23만 5,000건)를 소폭 하회. 반면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 수는 '21년 1월 이후 연속 순증해 '22년 11월 26만 3,000건을 기록했으며, 11월 실업률은 3.7%로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
- 코로나19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중고령자, 이동 및 이민 제한 등이 노동인구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금리인상 등으로 실업률이 급등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과 함께 BoA, Citi 등은 '23년 미국 경기 침체를 전망하며 노동시장 부진을 예상
- ILO에 따르면 글로벌 연간 평균 실질 월 급여는 인플레이션 지속, 고용 회복 영향 등으로 '22년에는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한편, 이로 인해 '23~'24년에는 임금 상승 요구가 예상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일 가능성 존재

국내 » 대면활동 재개로 취업자 수 증가, 향후 경기 둔화로 증가폭 둔화 전망

'22년 상반기부터 일상 회복에 따라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서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실업률은 고용통계 작성 이래 11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 '22년 11월 기준 제조업도 13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늘어남. 다만 '23년 경제 불확실성 확대, 경기 둔화 등으로 전반적인 취업자 수 증가폭은 축소될 가능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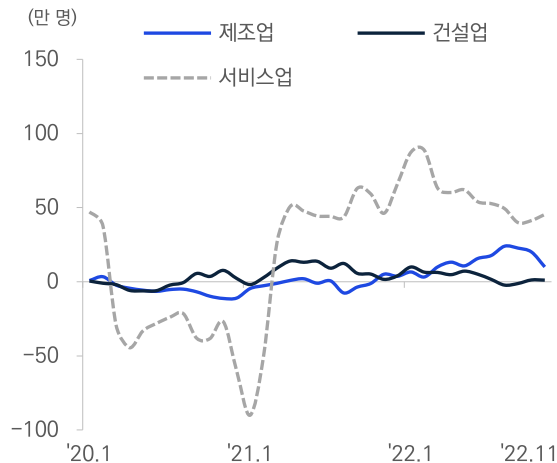
주요 고용지표

(만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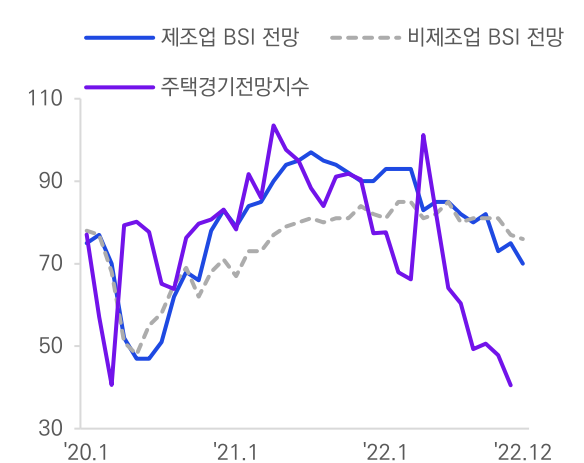
구분	2019	2020	2021	2022			
	연간			Q1	Q2	Q3	11월
취업자 수	2,712	2,690	2,727	2,737	2,835	2,843	2,842
전년동기대비 증감	30.1	-21.9	36.9	100.0	88.0	78.0	62.6
전기대비 증감	-	-	-	-24.2	97.8	7.8	3.0
고용률*	60.9	60.1	60.5	60.5	62.7	62.8	62.7
실업자 수	106.3	110.8	103.7	99.0	88.0	71.8	66.6
실업률	3.8	4.0	3.7	3.5	3.0	2.5	2.3

Source: 통계청
Note: 고용률=취업자 수÷15세 이상 인구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제조업·비제조업 BSI, 주택경기 전망지수



- '22년 11월 중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62.6만 명 증가한 2,842만 명으로 '21년 3월부터 증가세를 지속했으며, 실업률은 '22년 11월 말 기준 2.3%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 산업별 취업자 수는 '22년 11월 기준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2.3% 증가했으며,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0.5%, 2.3% 늘어남
- 제조업은 경제 불확실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업황 부진이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반도체 수출 둔화 등으로 취업자 수 증가세가 완화될 수 있음
- 주택경기전망 지수는 '22년 하반기 급락한 가운데, '23년 정부 SOC 예산이 '22년 대비 10.2% 감축되고 미분양증가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건설업 취업자 수가 소폭 감소할 가능성
- 서비스업 중 보건·사회복지업 취업자 수는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 방역일자리 등으로 개선세를 주도해 왔으나, '23년 중 정부사업 및 방역 관련 일자리 규모 축소로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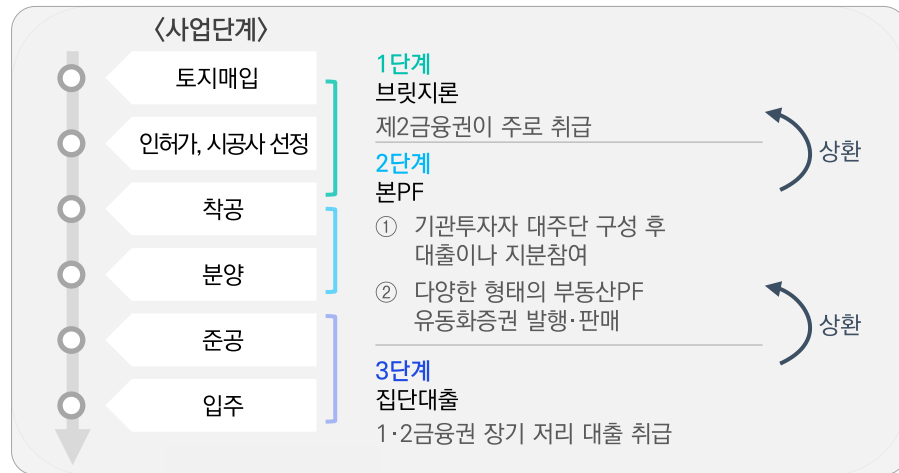
주요 경제 이슈



Issue 1. 부동산PF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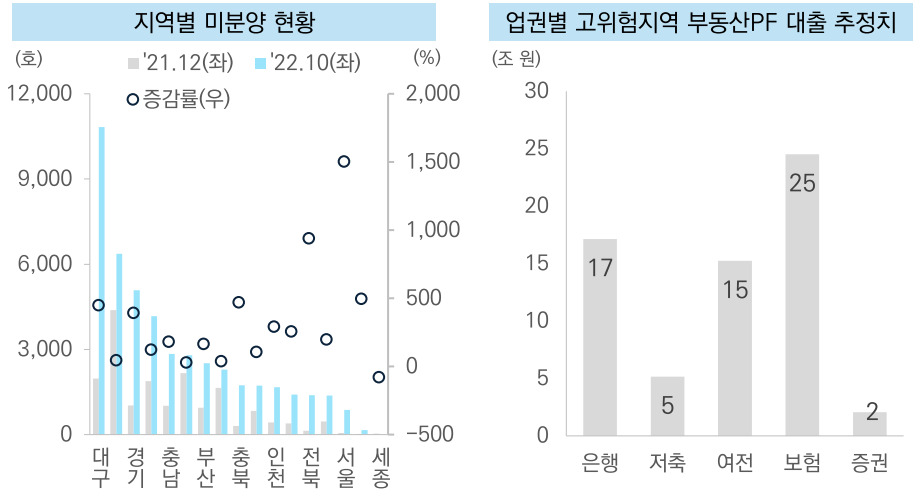
금리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방 압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업단계별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과 시장참가자(시행사-건설사-금융사)가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부동산PF·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 급증.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경기 하방 위험이 증가하고, 시중 자금시장 위축으로 지방·중소업체 건설사·시행사 등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국내 부동산PF 시장 구조 및 특징



- 연쇄적 자금조달과 상환: 순차적인 자금조달을 통해 전단계 대출 등을 상환
- 다양한 유형과 방식의 유동화증권 활용(예: 기 실행 대출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활용, 유동화증권 차환)
- 금융 및 신용보강 주체의 다양화: 각 단계별 증권사, 부동산신탁사 및 시공사(건설사) 등 제3자에 의한 부동산PF 신용보강

미분양 증가세 등에 따른 영향



- 대구, 경기 등을 중심으로 최근 주택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반적 주택경기 하락으로 미분양이 지방 등을 중심으로 확산될 가능성 존재
- 금리인상과 단기금융시장 위축 등에 따라 브릿지론 또는 PF 대출 등 차환리스크 확대
- 건설사·시행사의 수익성 및 건전성 악화 및 관련 PF 대출 및 지급보증 제공 금융사의 부실 가능성 우려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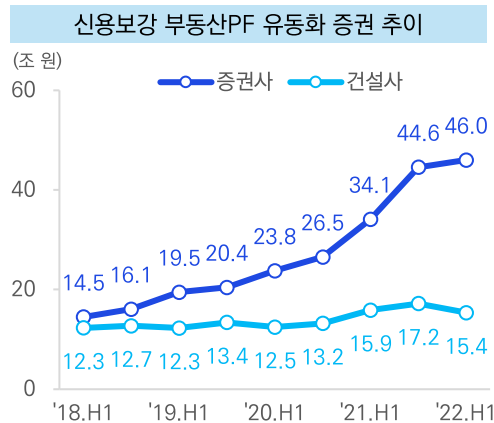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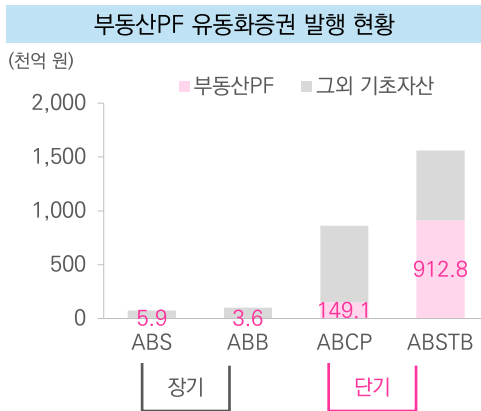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Source: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22년 6월말 대출 잔액 기준, '22년 3월말 대출 비중으로 추정
Note: 고위험지역은 주택가격 하방 압력이 상당한 곳으로 평가되는 지역·업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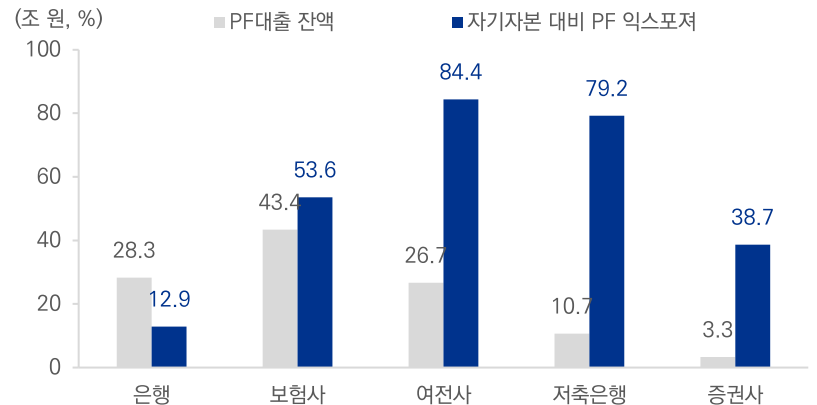
Issue 1. 부동산PF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 급증 (계속)

'22년 상반기 말 기준 부동산PF 유동화증권 시장과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각각 60조 원, 112조 원 수준으로 추정. 최근 금리 상승과 자금경색으로 부동산PF 유동화증권 및 브릿지론-본PF 취약성 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금융 익스포저가 높은 여전사·저축은행·증권사 등을 중심으로 건전성 악화 우려

부동산PF 유동화증권 발행 현황 및 기업 신용보강 유동화 증권 추이



업권별 부동산PF대출 잔액 현황 ('22년 6월 기준)



Source: 한국기업평가('22.7.29), '2022년 상반기 유동화 발행시장 분석', '22년 상반기 기준 자료 활용

Source: 나이스평가정보
Note: 잔액 기준

Source: 한국은행('22년 9월), '금융안정 상황', 한국신용평가('22년 8월), '증권 : 흔들리는 부동산 금융 - 브릿지론 및 본 PF 리스크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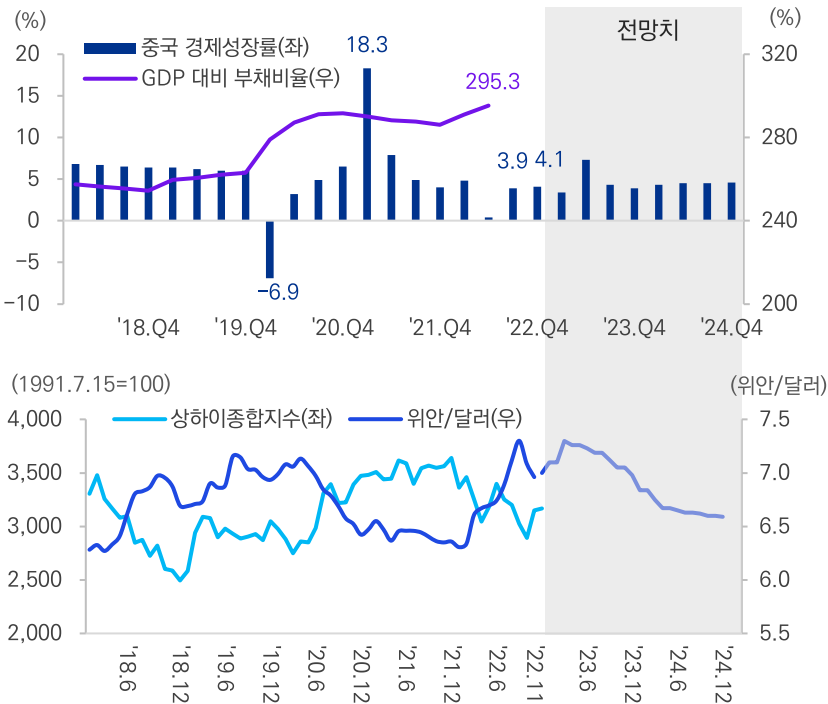
- 금리인상 기초 하 통상 3개월 이하 만기의 ABSTB와 같은 단기 부동산PF 유동화 증권 발행이 주를 이루는 국내 부동산PF 시장 특성 상 차환리스크 증가 중
- '22년 상반기 말 기준 증권사와 건설사의 신용보강을 받은 부동산PF 유동화 증권 발행잔액은 각각 46.0조 원, 15.4조 원에 달함
- 증권사의 만기도래PF 등 단기 유동화증권 차환발행 규모가 내년 상반기까지 월 10조 원 수준으로 추정
- 레고랜드 발 단기자금시장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2년 10월 23일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방안 등을 통해 시장 내 유동성 해소를 도모

- 여전사, 저축은행, 증권사 등을 중심으로 자기자본 대비 PF 익스포저가 높은 상황
- 본PF 외 중후순위 브릿지론 등에 대한 익스포저가 잠재위험으로 부상
- 한국신용평가는 '22년 3월 말 기준 24개 증권사 합계 브릿지론 규모를 8.2조 원으로 분석
 - 자기자본 대비 브릿지론 노출도는 대형(자본 3조 원 이상) 10%, 중형(자본 1조~3조 원) 18%, 소형(자본 1조 원 미만) 19% 등 순

Issue 2. 구조적 리스크에 당면한 중국 경제, 경기침체 우려 확대

중국은 금리인하·동결 기조, 위드코로나 정책 등으로 경기 부양을 도모하고 있으나, 과도한 기업부채, 부동산 시장 불안, 제한적 재정·통화정책 여력, 중국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등 구조적 리스크가 부각되며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 증가. 중국 수요 부진 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감소에 따른 국내 경기 둔화 심화 가능

중국 경제성장률 등 주요 지표 전망



Source: Refinitiv, 중국국가통계국, BIS, EIU

Note: 전망치는 EIU 기준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 불가피

- 위드코로나 정책에도 불구하고 '22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정부 성장목표(5.5% 내외) 미만인 3% 초중반 예상
- '23년 빠른 경제회복은 어려운 전망이며, 인구구조, 세계 공장으로서 지위 약화 등 중장기적 성장률 회복도 제한적

누중된 기업부채와 침체를 겪는 부동산 시장

- '22년 2분기 기준 중국 GDP 대비 부채비율은 295% 상회. 특히, 기업부채는 158.7%로 과다 부채가 투자 위축과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
- 중국 부동산 시장은 GDP 대비 약 25~30% 수준, 블룸버그는 '23년 만기 도래 중국 부동산 업체들의 채무 상환 규모가 최소 2,920억 달러(약 385조 원)로 추정
- 중국 금융당국, '22년 11월 부동산기업에 대한 대출연장 등 부동산시장 금융지원을 위한 16개 조치 발표. 이는 은행들의 부동산부문 익스포저 확대로 잠재 부실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

제한적 통화정책 여력과 이에 따른 위안화 절상 등 자금시장 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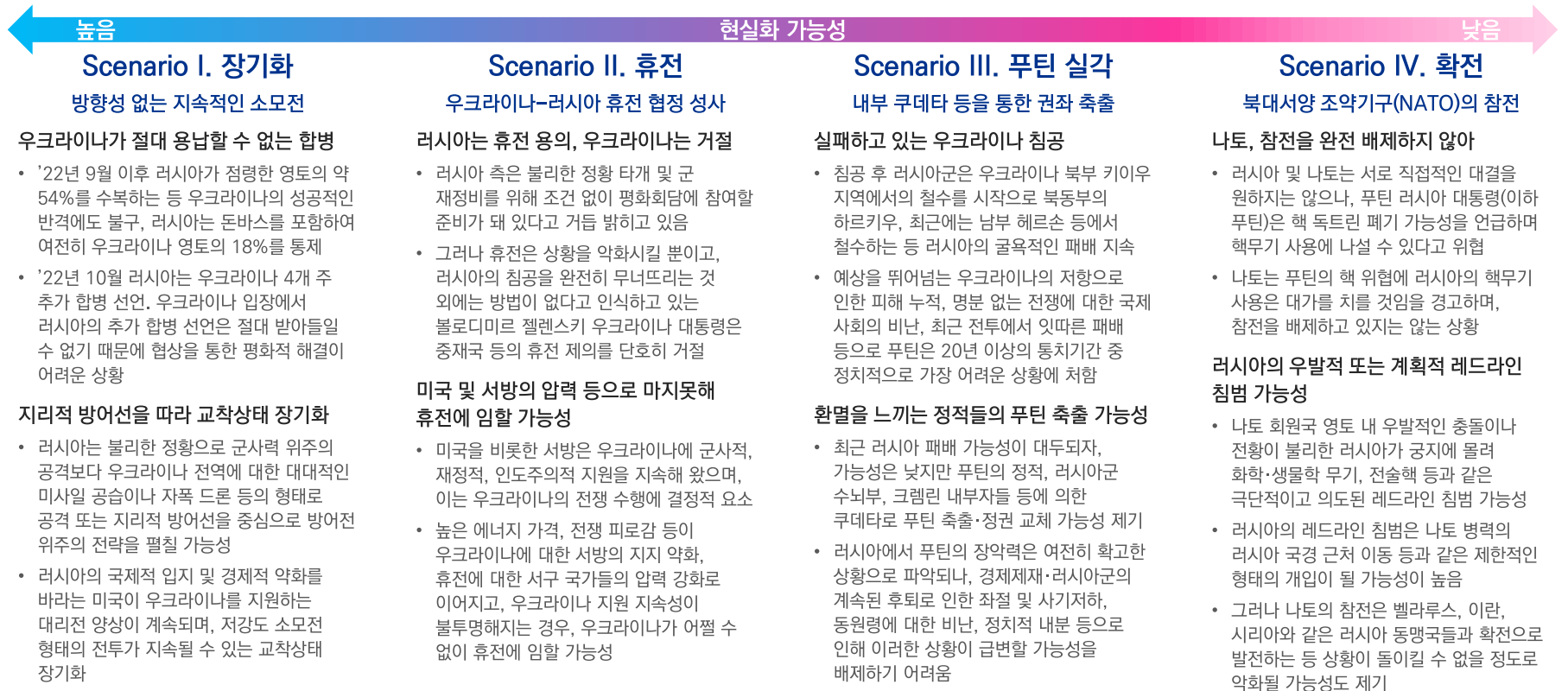
- 미국과의 내외금리차 확대와 위안화 절하 압력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 중국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 금리를 '22년 8월 0.1%p 인하 후 4개월째 동결 중
- 미국 추가 금리인상 시 중국 내 외국인 자본 이탈, 위안화의 평가절하 부작용 초래 가능

중국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 미·중 갈등, 비용상승에 따른 기업 수익성 약화,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뿐만 아니라 영수 체제를 지향하는 시진핑 정부의 계획경제 전환 기조 등으로 기업들의 탈 중국 러시와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질 가능성 존재

Issue 3.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향후 전개 양상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경제 협력 시스템 확보, 원자재 공급망 다양화 및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마련 등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국내 경제적 피해 최소화 노력 필요. 향후 약 7,5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대해 국내 기업들은 품질·가격 경쟁력 등을 강점으로 향후 인프라 및 산업시설 복구 등 사업 참여를 위한 준비 필요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해당 데이터는 언론 보도를 참

Issue 4. 미국의 적극적인 자본유치 정책

미국은 '22년 8월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제정했으며, 'SelectUSA' 프로그램을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외투자 유치에 노력하고 있음. 국내 기업은 미국의 자국산업보호, 공급망 재편, 해외자본 유치 등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반도체와 과학법 주요 내용

〈CHIPS 개요 및 예산 투입 계획〉

정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경제와 산업 부흥 및 기술 패권경쟁 승리 미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 및 생산의 종합적 경쟁력 제고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 및 연구개발인력 양성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 및 연구개발인력 양성 	

재원(기금명)	지원부문	예산 (억 달러)
CHIPS for America Fund	반도체 제조 지원	390
	국립반도체기술센터, 첨단 패키징 제조 프로그램 등 R&D 지원	110
CHIPS for America Defense Fund	반도체 기술 제작 전환 및 인력 교육을 위한 반도체 연구 허브* 지원	20
CHIPS for America International Technology Security & Innovation Fund	국제 정보통신기술 보안 및 반도체 공급망	5
CHIPS for America Workforce & Education Fund	반도체 부문 인력 양성	2
합계		527

Source: 국회예산정책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Note: Microelectronics Commons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요 및 국내 주요 산업 영향

〈IRA 개요 및 집행 예산 계획〉

정책기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제조업의 부흥과 국민 생활의 안정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 유치, 의료비 및 에너지 비용 감축 등

분류	예산 (억 달러)
총수입	7,370
15% 최저 법인세율(최저한세)	2,220
처방약 가격책정 개혁	2,650
국세청(IRS) 과세집행 강화	1,240
자사주 매입 1% 개별소비세	740
초과사업손실(EBL) 제한 연장	520
총투자	4,370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3,690
건강보험개혁법(ACA)* 연장	640
서부지역 가용대응 역량 강화	40
재정적자 감축	3,000

Source: 국회예산정책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언론보도 종합
Note: ACA(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 케어'로 불림)

Select USA 개요·미 FD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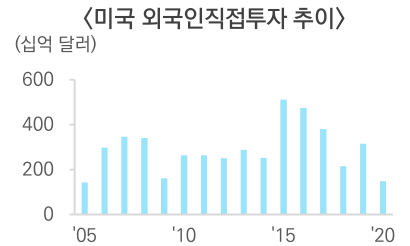
〈IRA 관련 국내 주요 산업 영향〉

- 배터리**
 - 핵심 광물 대부분 중국 수입으로, 수입국 다변화와 중국 외 지역으로 단기간에 생산시설 확장은 어려움
 -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 국내 기업이 미국에 합작법인 설립 예정. 미국 생산공장 확보 및 리사이클링 시장 진출 기회는 긍정적
- 자동차**
 - 국내 자동차 기업의 대미 수출 비중 높은 가운데, 보조금 혜택 받을 수 없어 단기적으로 수익성 저하 예상
 - 현대자동차는 '22년 10월 미 조지아주 공장 착공식을 앞둔 것으로, 북미 배터리 합작법인도 가동 예정
 - 중장기적으로 현지 생산능력과 시장 대응력 확보 시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태양광**
 - 미국은 한국산 태양광 셀, 모듈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IRA에 따른 세액공제 등으로 가격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전망
 - 한화큐셀은 '19년부터 미 조지아주에서 모듈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22년 5월 증설 발표

〈Select USA 개요〉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미 상무부에서 주최하는 연방정부 프로그램 대통령이 일선에 나설만큼 대표적인 투자 유치 프로그램이며 투자 종합정보 제공, 정부·기업·지자체 등과의 네트워크 장 마련
최근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 SelectUSA Investment Summit이 '19년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 '22년 6월 26일~29일까지 4일간 500여 개 기업과 3,000여 명 이상의 참가자 참석



Source: Select USA 공식홈페이지, World Bank,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

Issue 5. 인플레이션 및 금리인상 전망 관련 시장 투자자와 미 연준의 간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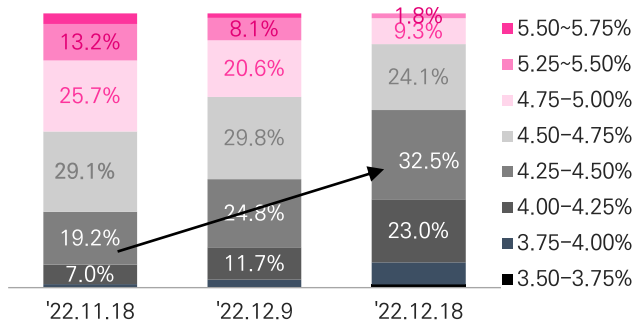
'22년 12월 FOMC에서 연준은 매파적 기조 및 최종금리를 5.00~5.25%(중간값 5.1%)로 제시하여 긴축 의지를 재 표명함. 그러나 시장에서는 경기침체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23년 최종금리를 4.75~5.0%로 전망하며,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예상하는 등 인플레이션 및 금리인상 전망과 관련하여 연준과 시장간 일정 부분 간극 존재

미국 정책금리에 대한 시장 기대치(CME FedWatch)

〈'23년 예정된 FOMC 회의별 정책금리 수준에 대한 시장 전망〉

FOMC 회의	4.00-4.25%	4.25-4.50%	4.50-4.75%	4.75-5.00%
'23.2.1	0.0%	0.0%	75.0%	25.0%
'23.3.22	0.0%	0.0%	30.7%	54.5%
'23.5.3	0.0%	0.0%	24.9%	50.0%
'23.6.14	0.0%	0.4%	25.3%	49.6%
'23.7.26	0.1%	7.2%	31.9%	42.0%
'23.9.20	2.7%	16.1%	35.6%	32.9%
'23.11.1	10.0%	26.7%	34.1%	21.2%
'23.12.13	23.0%	32.5%	24.1%	9.3%

〈'23년 12월 미국정책 금리에 대한 전망치 변화〉



Source: CME FedWatch, Bloomberg
 Note: '22년 12월 18일 기준,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22년 12월 15일 FOMC 연준 전망



최종금리 수준

4.75 ~ 5.00% 전망

시장은 '23년 상반기 4.75~5.00% 수준의 최종금리가 결정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며, 그 다음으로 4.50~4.75%로 전망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

'22년 10월에 이어 11월에도 물가상승률이 꺾이는 등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지나 둔화

'22년 10월 미국 CPI 상승률이 예상치보다 낮은 7.7%를 기록한 데 이어 '11월에도 올해 최저치인 7.1%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인식

금리인하 시점

내년 하반기 금리인하 단행 전망

시장은 '23년 9월 이후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시작해 연말에 4.25~4.50%까지 내려올 것으로 예측. '23년 9월~11월 4.50~4.75% 전망이 가장 우세하며, '23년 12월에는 4.25~4.50% 전망 비중이 가장 높음



최종금리 수준

5% 이상으로 예측 (FOMC 위원 19명 중 17명)

연준은 제약적인 정책 기조가 아직 충분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적절할 것이라고 예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

FOMC 위원들, 여전히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 우려

'22년 12월 FOMC에서 '23년 PCE 및 근원 PCE 물가지수 전망치를 각각 3.1%, 3.5%로 제시, '22년 9월 예상치(PCE: 2.8%, 근원 PCE: 3.1%)보다 상향 조정

금리인하 시점

금리인하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SEP*에도 내년 중 금리인하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

연준의 초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제약적인 정책 기조로 이동하는 것이지 금리인하가 아님을 강조

Issue 6. 브레이크 없는 민간부채, 상환여건 악화로 리스크 확대

한국의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글로벌 상위권에 위치하며, 민간부채가 경제 규모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금리인상, 인플레이션 환경과 맞물리며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국내 가계부채는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회사채 시장 부진으로 금융권 기업대출이 늘어나면서 상환위험 가중에 따른 금융 안정성 리스크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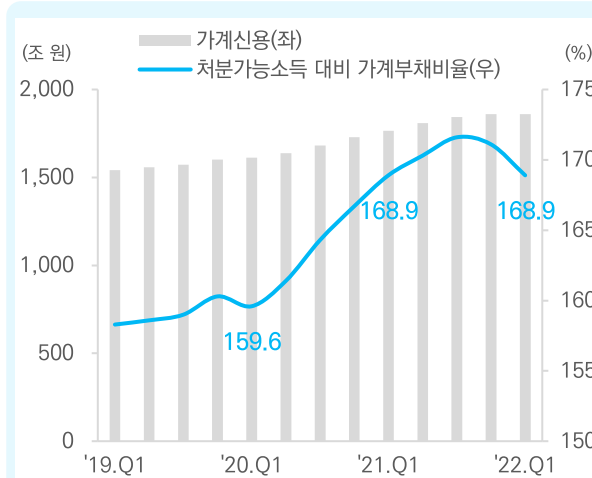
글로벌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 상위국

순위	국가	민간신용/GDP (%)	전년 순위
1	룩셈부르크	398.4	1
2	홍콩SAR	384.4	2
3	스위스	278.8	3
4	스웨덴	269.1	4
5	네덜란드	240.9	6
6	프랑스	231.2	8
7	덴마크	226.6	7
8	한국	222.1	12
9	중국	220.3	11
10	캐나다	219.8	9

Source: BIS
Note: '22년 2분기 기준

- '22년 2분기 한국의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222.1%로 글로벌 8위를 기록.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105.6%(3위), 기업신용 비율은 116.5%(14위)로 나타남
- 민간부문 레버리지가 GDP를 상회하면서 고금리·고물가 본격화와 맞물리면서 부실화 리스크도 점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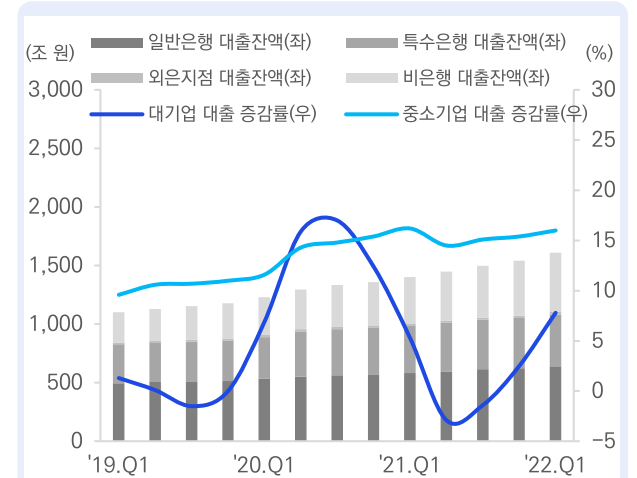
국내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Source: 한국은행('22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
Note: '22.Q1 처분가능소득은 직전 3개년의 연간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 처분가능소득 비율 평균치를 이용하여 추정

- 국내 가계신용은 '22년 1분기 1,859.4조 원으로 가계부채 관리강화,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가계 채무상환부담 또한 다소 완화
- 다만 대출규제 완화 등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자산 가격 변동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 상존

국내 금융기관 기업대출잔액 및 대출 증감률



Source: 한국은행('22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
Note: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은 기업 운전자금 수요 지속과 회사채 시장 위축 영향 등으로 '22년 1분기 1,609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8% 늘어나면서 증가세가 이어짐
- 특히 은행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는 대기업이 증가해 부실 징후 기업 모니터링 필요성이 확대

See other Business Reports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국내외 산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분석하며, 기업이 직면하는 경영 이슈를 점검하는 기획 발간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발간 불확실성의 시대, 산업별 주목 받는 섹터는?



Contents

- I. 불확실성의 시대, 경영환경 변화
- II. 5대 산업별 직면 이슈 & 핵심 키워드
 - 금융: 디지털·데이터 역량 확보, 판매 채널 고도화, 종합금융플랫폼 등을 위한 신사업 발굴
 - 소비자: 디지털 구독경제, 대체식품, 리세일(Resale)·중고거래
 - Tech: 시반도체·차세대 반도체, 메타버스 CPND, 로보틱스·시에이전트, IP 확장 콘텐츠
 - 인프라·헬스케어: 폐기물 처리업, 한국형 친환경선박, 스마트 물류센터, 디지털 테라퓨틱스
 - 제조: 전기차 배터리·페배터리, 저탄소 에너지, 친환경 미래 자동차, 레드 바이오

III. Key takeaways



QR코드
[다운로드]



보고서 PDF
[다운로드]

2022년 10월 발간 2022 글로벌 CEO 설문조사 리포트 KPMG 2022 CEO Outlook



Contents

KPMG는 전 세계 CEO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CEO의 인사이트와 경영 우선순위 변화를 보고서에 담고 있습니다.

- KPMG, 글로벌 CEO 1,325명 대상 경영환경 및 경제 성장 전망 조사
- CEO 85% “향후 3년 기업 성장 낙관적”
- CEO 76% “경기 침체 대비해 리스크 완화 계획 수립, 기업 회복력 ‘자신’”



QR코드
[다운로드]



보고서 PDF
[다운로드]

Business Contacts

Industry Leader

금융산업

조원덕

부대표

T 02-2112-0215

E wcho@kr.kpmg.com

유통·소비재산업

신장훈

부대표

T 02-2112-0808

E jshin@kr.kpmg.com

자동차산업

위승훈

부대표

T 02-2112-0620

E swi@kr.kpmg.com

제조·건설산업

변영훈

부대표

T 02-2112-0506

E ybyun@kr.kpmg.com

전자·정보통신·반도체산업

염승훈

부대표

T 02-2112-0533

E syeom@kr.kpmg.com

home.kpmg/kr

home.kpmg/socialmedia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